

불교병원 건립 막바지

개원시기 조만간 드러날 듯 ... 학내 구성원 논의 필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건립중인 본교 의과대학·한외과대학 부속 불교병원 준공이 눈앞에 다가왔다.

불교병원은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까지 마친 상태이며, 내달 5일 실시되는 대한병원협회 실험실습 병원실태조사를 위해 내부 청소작업을 진행중이다. 준공식은 다음달 27일 열린다.

건축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병원 개원시기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최창선 불교병원건립추진본부장은 "가까운 시일내에 동국의료원을 중심으로 개

원준비팀(가칭)이 구성돼 의료장비 구입 등 개원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학기 총학생회(회장=주진완·국교4)의 총장실 점거 등 진통을 겪으며 '불교병원은 학내 주체들의 논의의 장을 통해 적절한 개원시기를 결정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낸바 있다.

따라서 학교당국은 준공식 이후부터 개원까지의 전과정을 학내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원시기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수회 학교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박종훈·윤리문화화)가 지난 12일 동국학원 이사에게 서한을 보내 불교병원과 관련한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한 내용을 살펴보면 △불교병원 투자 예산규모 공개 △일산 국제 선 센터 공사 중지 △이사장·총장의 병원 관련 결정권 중지 등이다. 특히 교수회는 △학교부채 △현금화권 발전기금이 대부분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과 관련해 학교측과 협의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는 지난 22일 교수회에 해명 요구서를 보내 △현 학교 부채=사학진흥재단과 OECF(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ound, 해외경제협력기금) 장기차입 100여억원 △발전기금=307여억원이 현금화되었으며 병원건립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측은 교수회에 △학교부채 △발전기금 부분 등과 관련해 해명할 것을 요구한 상태이다.

대학부
dmz@dongguk.edu

총장선출 준비 본격화

교수회, 교수직선제 설문조사 실시 직원노조 "구성원 참여 보장돼야"

제15대 총장선거가 가까워지면 교수회 총장선출을 준비하는 학내 주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교수회 총장선출준비위원회(위원장=유덕기·생명자원산업유통학)는 지난 학기 실시한 '민주총장후보선출 준비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분석해 내일(27일) 열리는 총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그동안 실시된 설문조사 중 응답률이 가장 높은 서울·경주캠퍼스 전체 교수의 약 37.4%가 참여했다. 또한 총장선거 참여의사를 밝히는 응답자가 91.8%로 집계돼 15대 총장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차기 총

장이 추진해야 할 과제로 '교육환경 개선' '교권 및 학교위상 제고'를 꼽았고, 차기총장 후보에게 요구되는 덕목으로 과반수 이상이 '민주적 리더십'이라고 응답해 학내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지적했다.

또한 총장후보선출과정에서 가장 크게 부각될 문제로 응답자의 70% 이상이 '조직동원, 파벌조성'이라고 답해 교수직선제가 교수들의 학연·지연으로 번질 것을 우려했다. 교수직선제를 위한 교수회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교수가 '교수회 재단과의 대화를 통한 선택'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98년 당시 재단측이 총장을 전격적으로 낙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유덕기 위원장은 "오는 9월 총장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교수직선제를 통한 총장선출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원노조(지부장=강형석)는 교수를 비롯한 직원·학생이 총장선출에 참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혀 선출방식에 대한 학내 주체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수회는 자체 규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권 직원 대표와 학생대표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줄 수 있다(제15조)'고 명시하고 있지만, 선거권자는 '선거일 현재 본교 전임교수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제19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측은 앞으로 총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야할 것이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박영석 동문 유럽최고봉 정복

5,633m 엘브르즈 ... 남·북 극점 등반 예정

'7대륙 최고봉·3극점 정복'에 도전하고 있는 박영석(체교91졸) 동문이 지난 5월 오세아니아 최고봉 칼스텐즈(4,884m)에 이어 유럽 최고봉 엘브르즈(5,633m) 등정에 성공했다.

엘브르즈 최고봉은 러시아에 소재한 유럽 최고봉으로 박 동문은 지난달 7일, 8시간 반만에 등정에 성공했다.

이로써 박 동문은 세계 7대륙

최고봉 중 6개 대륙 최고봉 등정 성공으로 산악그랜드슬램(히말라야 14좌등 완등, 7대륙 최고봉·3극점 정복) 달성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현재 남극대륙 최고봉과 남·북 극점 등정만을 남겨놓았다.

한편, 다음 등반 일정은 남·북 극점 중 한 곳이 될 예정이지만 기금 조성 등의 문제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 한총련 합법화 대책위원회(공동대표=오종렬 외)가 지난 23일 프레스 센터에서 한총련 이적규정 유엔 인권 이사회 제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되는 이적규정의 철폐를 강력히 주장했다.

염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야구부 추계리그 출전 원광대와 내일 첫 경기

야구부(감독=한대화)가 오늘(26일)부터 동대문운동장과 청주야구장에서 열리는 '전국대학야구 추계리그'에 출전한다.

총 24개 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 본교는 고려대, 동아대 등 5개 대학과 함께 D조에 편성됐으며, 내일(27일) 오전 9시 청주야구장에서 원광대와 첫 경기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대회 예선은 조별리그로 열리며 결선은 8강 토너먼트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년퇴임 교수 5명

지난 20일 퇴임식 열려

2002학년도 정년교수·직원 퇴임식이 지난 20일 총장실에서 열렸다. 퇴임교수는 서울캠퍼스 목정배(불교학) 민태진(화학) 이혜풍(생물학), 경주캠퍼스 김필수(철학) 김병기(국제통상학)이다.

▶관련기사 9면(특집)

본사주최 '죽어도 좋아' 상영회

70대 부부 성 묘사 ... 제한상영가 판정 논란

본사와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윤형준·중문4)의 주최로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아 영화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영화 '죽어도 좋아' 상영회가 지난 21일 학림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상영회는 본교 학생들과 영화사 관계자, 외부 언론사 기자 등이 객석을 가득 메워 성황리에 진행됐으며 상영회 이후 공청회와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70대 노인들의 성과 사랑을 그린 박진표 감독의 '죽어도 좋아'는 지난달 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김수용, 이하 영등위) 소위원회에서 성기 노출과 구강 성교 장면이 일반인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국내의 제한상영가 전용관이 없는 상황에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것은 사실상 상영불가 판정과 마찬가지다. 이에 영화인회의·문화개혁시민연대 등 여

러 단체가 제한상영가 등급 철폐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고 '죽어도 좋아'에 대한 논란은 영화계 전체로 확대됐다.

한편 '죽어도 좋아' 제작사측은 영등위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며 결과는 내일(27일) 발표된다.

▶관련기사 12면(문화테마면)

방종 도서기증 7천500여권 지एस박스 서점 등

중앙도서관(관장=조용길·불교학) 관리팀은 방학 중 지एस박스 서점에서 기증한 3천600여권의 도서를 포함 총 7천500여권의 도서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지एस박스 서점은 재고도서 총 3천687권을 기증하였으며 스즈기가와 쿠라오 교수 법학관련 도서 1천여권 △고 교인(불교학) 전 교수 불교관련 도서 1천여권 △이해풍(생물학) 교수 생물학 관련 도서 1천여권을 기증했다.

지면안내

4~5면 8.15 민족통일대회

분단 이후 최초로 서울에서 남북 민간 대표가 만났다.

지난 14일부터 4일간 열린 8.15 민족통일대회를 살펴보고, 행사의 다양한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 보았다.

6면 이북 학술동향 기획

7~8면 석·박사 학위자 명단

보리소

아! 8월이구나

우연히 보았다. 오랫동안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성자(聖子)의 거룩한 말도 아닌데, 웬지 입가에 미소와 함께 그 재치가 자꾸 떠오른다.

비 오던 8월의 어느 오후 대로변에서 현수막 하나를 봤다. "아 8월이구나 ... 주민세 내야지" 구경에서 걸은 것이다. 물어보았다. 8월이 주민세 내는 달입니까? 그러곤 집에 가서 얼마한테 우리 주민세 냈나? 했다.

권위주의 시대를 이야기 하지만 사실 어디까지 어떤 것이 권위인가를 명쾌하게 설명 못

한다. 관은 어느 정도 위엄이 있어야 대중을 끌고 갈 수 있다는 말도 평소 해왔다. 그런 내 생각이 현수막 한 장에 망가져 버렸다. 시대가 변하고 있구나. 나는 얼마나 변했나? 방송 한담이고 여기저기서 주위들은 훌륭한 말을 자주 인용했다. 그러곤 심취하곤 했다. 단어가 갖는 권위 그리고 말을 한사람의 지명에도 많이 기댔다.

새로운 고민에 쌓였다. 권위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온 권위가 효율로 이어지는가? 주위를 살펴보았다. 자신도 들

러보았다. 결론은 나오지 않고 혼란만 쌓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을 찾았다. 그러곤 법구경에서 이런 말을 찾았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듯 자기 자신이 행할 수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다."

사회 지도층이 사회로부터 예우를 받는 것은 어찌된 당연하다. 그러나 공식적 지도층이 되기 위한 과정을 변명과 책임전가로 넘어간

다면 그는 진정한 지도층이 될 자격이 없다.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람은 도덕성을 엄격히 검증 받아야 한다. 평가는 상대적일지는 몰라도 검증은 절대적이어야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티끌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권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또 한 차례의 총리 청문회를 조심스레 지켜본다.

남선
불교방송 보도국 사회문화부장

동대신문 기획광고



동대신문과 독자의 하나되기

2002년 2학기 동대신문사가 모니터 요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0명
- ▲응시자격 : 동국인이거나 누구나 가능
- ▲제출서류 : 동대신문 한 호를 읽고 모니터 작성
- ▲접 수 : 8월 29일 오후 6시까지
- ▲제 출 처 : 학생회관 지하1층 동대신문사

*모니터 요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발전기금 060-700-0119

동대신문사

- ### 본 사 사 령
- ◇ 임 차 장
 - ▲대학부 1차장 겸 사진부 차장 = 김진성(사과대 신방2)
 - ▲대학부 2차장 = 신정환(자연대 정통2)
 - ▲대학부 3차장 = 조슬기(문과대 영문2)
 - ▲사회부 차장 = 송문경(사과대 사회2)
 - ▲학술부 차장 겸 기획부 차장 = 한보라(사과대 경제2)
 - ▲문화부 1차장 = 김하나(예술대 문장2)
 - ▲문화부 2차장 겸 여론·생활부 차장 = 이지현(인문대 영문2) - 이상 8월 26일자
 - ◇ 의 원 면 직
 - ▲합민회(인문대 국문2) - 이상 7월 31일자

남북 민간급 교류, 자신감을 갖다

주위불안 해소, 안정감 심어줘 ... 대중화 노력 미흡 한계

‘이제 서울에서도 할 수 있다’
 분단 57년 만에 최초로 서울에서 대규모 남북민간대표들이 만났다.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워커히 호텔에서 남북대표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민족공동행사가 진행됐다. 서해교전으로 대북간접이 좋지 않은 데다 지난해 평양공동행사 이후 겪은 방문록 사건이 아직 잊혀지지 않아 부담이 만만치 않았던 행사였다.
 그러나 일단 행사를 지켜본 인사들은 “무사히 치렀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선 민간급 행사에 대한 불안은 종식시켜 ‘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놓았다는 데 큰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북측의 대규모 민간 대표단들이 내려와도 별 탈 없다는 사실을 행사를 치른 자체로 보여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사’만으로 커다란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성사시키는 일이 그만큼 험난한 일이었음을 시사한다. 난관은 대부분 정부와의 의견 조율 문제에서 비롯됐다. 사실 보수세력의 비난 여론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기는 추진본부 측이나 정부측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수위조절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
 ‘플러스를 줄여서라도 마이너스를 줄이



자’는 전략이 공통적이었다면, 플러스를 줄이는 정도에 정부와 추진본부간의 편차가 있었던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개막 이틀 전 정부가 행사규모를 4천명에서 500여명으로 대폭 축소시키고 한총련, 범민련의 참관불허 결정을 내린 일이다. 이들이 소속된 통일연대는 표결까지 거쳐 결국 ‘성사’에 주력하자는 의견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통일연대 소속이었던 자통협은 이에 반대하고 추진본부에서 철수했다. 정부안을 수용하

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북측 대표단 도착 첫 날 러원구 민주전선 의장의 여운형 선생 산소 방문 허가문제와 셋째 날 몇몇 작품의 사진전 전시문제 등을 두고 추진본부를 매개로 정부와 북측의 밀고당기기가 계속됐다. 특히 추진본부 내에서 세 단체의 입장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정부와의 의견조율이 더욱 쉽지 않았다. 이 가운데 개막식 호소문의 경우도 입장차이가 뚜렷하게 었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학생대회를 강조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여겼던 민화협과 종단축이 통일연대와는 달리 호소문에 날짜를 명시하는 것을 꺼렸던 것이다. 결국 의견조율 때문에 개막식은 한 시간 정도 지연됐고, 유일한 남북 체육행사였던 단결놀이마당은 취소됐다.
 한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다보니 행사의 의미가 대중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마이너스를 크게 의식해 플러스를 지나치게 줄여버렸다는 것이다. 때문에 보수단체들이 빌미를 삼을만한 일이 거의 없어 남남갈등 상황은 없었지만 정작 국민들은 워커히에서만 진행된 이번 행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이에 추진본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빈약했다는 점은 인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추진본부의 행정적 실무능력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일정관리, 대표단 숙식, 재정문제 등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연대의 강형구 조직팀장은 “예전 행사 준비와 차원이 달라 힘들었다”며 “행정적인 능력을 키운 것도 추진본부 측에서 보면 커다란 성과”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의 성과와 한계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붙어있다. 문제는 앞으로 더 이상 ‘성사’ 자체를 성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민간단체들이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능력을 키워 민간급 교류도 정부교류에 대등한 또 다른 ‘통일 수레바퀴’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송윤경 기자
 itsJ@dongguk.edu

사설

하반기를 준비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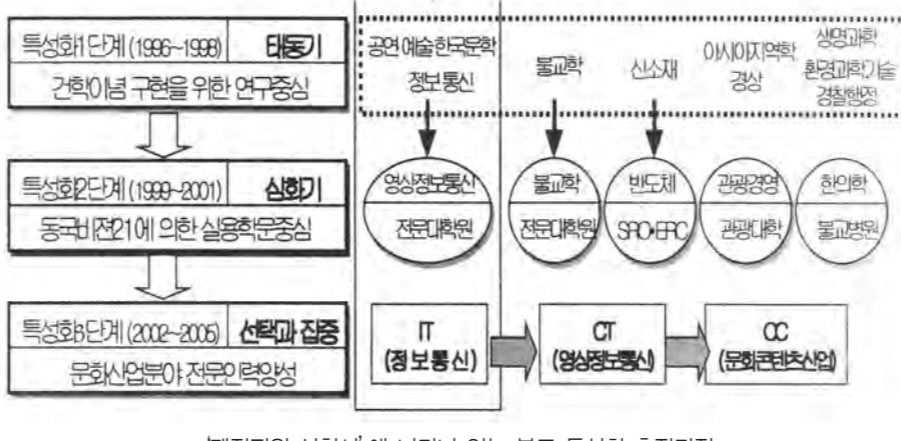
얼마 전 열린 7차 남북장관급회담과 8.15 민족통일대회의 역사적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불교를 든 남북민간교류는 9월 초 남북축구대회와 여성대회, 북의 아시안 게임 참가 등으로 숨겨쁘게 진행될 듯하다. 여차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내 답방까지 접쳐볼 수 있다고 하니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분단 이후 최대의 해방기를 맞은 셈이다.
 남북교류의 급물살과는 달리 정치권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국정수행은 뒷전인 채 병역비리를 둘러싼 정쟁, 신당 창당론 등으로 벌써부터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말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이러한 정치권의 모리배적 행태는 더욱 심각해져 혼란만 거듭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미 부시정권의 이라크 공격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후 세계경제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자못 걱정스럽다.
 시선을 돌려 학내를 살펴보면,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는 불교병원 준공식이 오는 9월에 있으며 도서서관 개관이 10월말로 예정되어 있다. 98년 재단의 일방적 총장 낙점이후 처음 치르게 되는 총장 선거 역시 올해 말이다. 이에 따라 선거방법에 대한 학내 제주체들의 공개적인 토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후보구성부터 총장선출까지 민주적 총장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그리하여 학내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동국발전으로 이어나갈 역량과 덕망이 있는 인물을 차기 총장으로 선출해야 할 것이다.
 새학기가 시작되었다. 모두들 알찬 방학을 보내고 다시 학업에 정진할 준비를 하느라 바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올 하반기는 학내·외에 어느 것 하나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사안이 없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총장 선거는 앞날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어느때보다 촉각을 곤두세워 지켜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학업준비와 함께 2002년 하반기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빠지기 쉬운 냉소주의와 허무주의는 경계해야할 것 중 1순위이다. 급변하는 한국사회와 학내 상황에 대한 관심은 시대의 지성을 대표하는 대학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인으로서 또한 동국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잊지 않는 2학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우수대학 신청서’로 본 본교 특성화 장기계획 세워 특성화 논의해야

전분야 내실있는 교육개혁 필요

재정지원을 담보로 한 획일적 개혁을 강요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속에서도 매년 많은 대학의 신청속에 진행되는 교육개혁 우수대학 재정지원이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됐다.
 을 교육개혁우수대학 선정은 지난해와 비교해 재정 지원 대학수가 늘어, 국고지원이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했다는 특징을 나타냈다. 이것의 원인으로는 △대학규모별 대·중·소 분리 △일반대와 산업대 분리 △별도 지원계획에 따른 국립대 배제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교육과정 개발 및 특성화(1분야) 우수대학에 선정된 바 있는 본교는 올해 지원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리 지 못했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와 달리 대학별 자체교육 실천분야(2분야)에 지원했다는 점이다.
 이는 한 분야에서 2회 연속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동안 본교 특성화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원신청서를 살펴보면 본교는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분야 등을 통합·발전해나간다는 특성화 전략을 갖고 있다.
 이는 단계적으로 △1단계=정보산업대 신설 등 IT분야 집중 육성 △2단계=컴퓨터 기술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 분야의 디지털화 △3단계=문화콘텐츠 직접 생산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96년부터 2005년까지 9년에 걸친 발전방안이다.
 그러나 96년부터 3단계로 진행되는 본교의 특성화 사업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특성화 1단계에서는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한다고 명시되었지만, 올해부터



시작되는 특성화 3단계는 ‘교육중심대학’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교육개혁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상정보통신대학원과 SRC·ERC 등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교육기관들이 나란히 같은 특성화 단계의 성과로 제시된 점도 특성화가 한 분야로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지원신청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특성화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으로 요약된다. 때문에 대학의 특성화는 학내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선택분야와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본교 특성화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명확히 세우지 못한 것은 특성화 분야 선택에 대한 구성원들의 합의가 완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교의 특성화 분야는 구성원들의 충분한 합의를 거친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교육개혁 역시 이러한 틀 아래 학내 모든 분야가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유현우, 부주: 장영길, 편집: 류병진, 편집: 손상민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7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동약로

주차권 사각지대



“주차증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일반 대학원 석사 과정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일반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전, 한 입학생이 주차증 발급을 요구한다. 지방에서 등교를 하기 때문에 차를 타고 올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결국 이 학생은 주차증을 받지 못했다.
 현행 주차 관련 규정상 학생의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 학생 △박사 과정(연구 학생 제외) △특수 대학원 석사 과정이 아니면 주차증을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학생은 자가용으로 등교할 경우 30분 당 1천500원, 2시간 초과 시 30분당 3천원의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총무처(처장=황영수) 총무팀은 주차증 발급 대상을 줄이고 할증 요금을 적용해 장시간 주차를 막는 등 학내 주차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본교에는 3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밖에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차증이 발급 되지 않아 주차증 발급 자격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휴~ 두 달 동안 목발을 하고 학교에 어떻게 다니지?”
 “차라도 타고 오면 좋을 텐데 주차료가 장난 아니잖아. 안타깝다.”
 거동이 불편한 학생들에게 문제는 더욱 크게 다가온다.
 휠체어 사용 장애 학생의 경우 무료 주차증이 발급되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장애로 걸음이 불편하거나 사고로 인해 목발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차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통행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차량을 통제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 현실적 어려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일 것이다. 등하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일 역시 학생 복지의 한 측면이며 학교 당국의 몫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진성 기자
 yeam@dongguk.edu



소외된 ‘주연’들의 조용한 환영행사

건국대 곳곳 통일행사 개최 ... 보수여론 의식한 신중한 태도

대를 떠올려보라”며 “원래 개최장소였던 펜싱경기장에서 해도 시원찮을 행사를 어떻게 이렇게 축소시킬 수 있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김형기(전남대3) 군도 “이 곳 건국대에서 그동안 통일운동에 힘쓴 범민련, 한총련과 북측 대표단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통일운동 단체를 배제한 정부 방침에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정부를 규탄하기보다는 대화를 성사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환영대회가 열린 건국대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었다. 지난해 평양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에서 남측 대표단의 ‘돌출행동’이 일부 언론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됐던 것을 의식해서인지 행사 참가자들은 보수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도록 스스로 행동을 경계하는 모습이였다.
 한총련은 ‘반미’ 구호를 ‘통일’ 구호로 바꿔 부르는 등 민족의 화해와 관련된 구호를 주로 외쳤으며 행동 반경도 가급적 행사장이었던 건국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하는 입간판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워커히 호텔에서 열린 민족통일대회에 초점이 맞춰

진 까닭에 건국대 환영행사는 예년에 비해 규모가 약간 축소됐지만 참가자들의 폭은 더욱 넓어졌다는 평가다. 행사기간 중에는 △민주노동당 결의대회 △농민통일 한마당 △백만 노점 결의대회 △여성 한마당 △민족통일교사대회 등 다양한 부문 행사가 열려 행사장을 한층 풍성하게 만들었다.
 그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끈 행사는 14일 오후 2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청소년 통일 한마당 우리 하나되어’였다. 이날 행사에서 청소년들은 랩, 전통 무예, 수화 공연 등 대학생 ‘언니 오빠들’과는 다른 그들의 신선하고 다양한 공연으로 통일에 대한 열원을 표출했다. 의정부에서 왔다는 김진경(17) 양은 “친구들이 예전엔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일본을 꼽았는데 이번 미국이 1순위”라며 “어서 통일이 이루어져 범죄를 저지르는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떠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신나게 통일 한마당을 벌이던 시간, 선생님들도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건국대 학생회관에서 8.15 민족통일교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전국 교대생대표자협의회 이민경 의장은 “우리민족끼리 손을 잡고 사는 통일된 조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청학대회에서 만남세다”

8.15 민족통일대축전에 이어 남북의 청년학생이 만나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을까. 지난 8.15 민족통일대회 행사 마지막날 열린 부문별 상봉 모임에서 남북 청년학생 대표단은 오는 9월 초 금강산에서 남북 각 200명, 해외 50명, 남측 참관단 100명 규모로 ‘남북해의 청년학생통일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청년학생통일대회에서는 체육 행사, 통일축구경기, 축하 연회, 청년학생통일무대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이 행사에 대해 완강한 거부 입장을 보이던 통일부가 다소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행사 개최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밖에 각 부문별 상봉모임에서 여성 부문은 9월 금강산에서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성 통일대회를 개최할 것을 합의하고, 농민 부문은 내년 7월에 2차 남북 농민대회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총단은 종교계 수장들의 평양 방문과 대북 지원 방안을 △언론은 남북 언론교류 확대 방안을 △문화예술 부문은 남북 민족예술인대회 10월 중 금강산(또는 평양) 개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통일선봉대 ‘시비걸기’ 인터뷰

15년간 이어온 것이 열정 뿐일까



철의 전사, 피의 규율!
 범청학련 통일선봉대를 상징해 온 ‘전통 있는’ 공식 표현이다. 범청학련 통일선봉대는 통일운동진영에서 해마다 자체적으로 조직해 8월 15일까지 약 보름간 전국을 순례하며 통일운동을 펼치는 조직이다. 지난 88년에 처음 출발해 올해로 꼭 15년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90년대 후반 이전까지 통일운동은 심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통일선봉대가 보름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활동하기 위해서는 ‘게릴라’ 수준의 조직을 갖추어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의 조직구성이나 문화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통선대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데 최근 들어 이에 대한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학생운동 방법이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진 채 경직되어 있다는 비판과 대체로

같은 맥락이다. 특히 이들은 약 보름간 학생운동진영, 특히 한총련이 추구하는 활동을 집약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현재 학생운동의 모순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낸다. 이들의 활동을 단지 ‘응원’의 차원에 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올해 15기 통일선봉대 서군 서총련 중대장을 지낸 항공대학교 김재성 군을 만나 그가 생각하는 통일선봉대에 대해 들어보았다.
 - 15기 통일선봉대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 각 지역 양심수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와 주한미군기지를 방문하면서 현재 한미관계, 한반도 정세 등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중대장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느껴지긴 했지만 주위 소대원들이 잘 따라줘서 잘 극복한 것 같다.
 - 소대, 중대, 대대로 이루어지는 체계는 군대에서 따온 것인데 상하구조를 너무 확실히 구분해 놓는 것은 아닌가.
 = 용어의 문제다. 혹시 그런 용어들로 군사주의가 스며들 여지가 있다면 다른 말로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조직체계의 상하구조는 많은 사

람들이 효율적으로 함께 생활하려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문제는 이러한 상하구조에서는 스스로 고민해야 할 부분까지 상층부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는 점 아닌가.
 =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각자 생각해보라고 하면 개인의 역량차이로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에서 정리된 내용이 전달되면 그걸 토대로 생각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다.
 - 몸싸움을 반복하다보면 그 궁극적 목표보다는 싸움 자체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 몸싸움은 불가피해서 하는 것일 뿐이다. 예를 들어

항의서한을 전달하러 가려고 해도 전투경찰이 먼저 몸으로 막으니 함께 몸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는 이와 같이 몸싸움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 편이다. 스스로 그러한 이유를 알고 싸우면 궁극적인 목표를 잊고 싸움자체에 의미를 두는 일은 없다.

- 물리적인 폭력에 크게 중점을 둔다면 여성이 무의식중에 무기력증을 느낄 것 같은데.
 = 글썄, 여학우들이 스스로를 무기력하다고 느끼리라고 생각해보진 적 없다. 여학우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몸싸움을 하니깐. 다만 싸움이 심해질 때에는 뒤로 빠지게 한다.
 송윤경 기자
 itsj@dongguk.edu



15기 통일선봉대원들이 행사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경우

◀곰게 한복을 차려 입은 남북 여성들이 단일기를 들고 입장하는 순간, 첫 만남의 어색함도 잠시 어느새 사람들은 하나가 된다.

8.15 그날... 우리 하나 되어



▲건국대에서 열린 환영대회에 북측대표단과 함께 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통일연대 한상렬 목사. 한상렬 목사는 민족통일대회 개막 연설에서 '6·15 아리랑'을 열창해 많은 이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공동선언 이행하여 조국을 통일하자!'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6·15 공동선언은 우리 모두가 이행해야 할 통일의 이정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조국은 하나요 민족은 한 몸
우리 민족끼리 통일 합시다



◀◀"모두가 한 뜻 마음으로 우리 아름다운 마음으로~" 흐르는 음악에 맞춰 몸짓을 하는 이들로 무대 위도 운동장도 흥겨움이 가득하다.

◀범청학련 결성 10돌을 맞아 열린 생일잔치에서 축하 노래를 부른 두 어린이가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고 있다. 아직은 어리지만 아이들의 소원 역시 우리의 소원과 같을 것이다.



민경우

▲손에 손에 단일기를 흔들며 북측 대표단을 환송하는 사람들. 짧은 만남이 어렵지만 다시 만남 그 날을 바라며 "잘 있오라 다시 만나요,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사진·글 = 사진부

교육여건 온라인 설문조사 및 경품행사

1. 취지 및 목적

- 가. 본교 교육 제반 현황에 대한 상시조사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에 반영하고자 함.
- 나. 향후 교육개혁의 방향 및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요구에 기초한 정책결정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다. 본교 교육여건에 대한 재학생들의 다양한 의식을 파악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학교 및 학업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며, 학생의 요구에 부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함.

2. 설문조사 기간 : 2002. 9.13(금)까지

3. 설문 방향 및 내용

- 가. 교육 여건 및 학사제도 전반에 대한 의식도 조사
- 나. 주요 설문 내용
 - (1) 교육여건 전반에 대하여
 - (2) 학사행정 영역에 대하여(전공선택제도, 복수전공제도, 전과제도, 행정서비스 등)
 - (3) 교육시설 영역에 대하여(강의환경, 도서관, 실험실습실, 컴퓨터실 등)
 - (4) 교육과정 영역에 대하여(수강신청, 교과목 개설, 학업지도, 학업평가 등)
 - (5) 학생복지 영역에 대하여(학생복지시설, 편의시설 등)

4. 설문 방법

- 가. 설문 방법 : 본교 홈페이지를 통한 학생의견 조사
- 나. 설문응답시 응답자 1인이 복수응답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진솔하게 응답 요망
- 다. 인터넷상에서 주제별(5개영역)로 설문조사 실시 (교육여건 전반을 응답한 후 다른 주제로 이동하여 Click)



5. 경품 행사

가. 경품지급 대상자 : 교육여건설문 온라인 조사 기간중 설문에 응답한 본교 재학생중 추첨을 통해 선발

나. 경품 내역

- (1) MP3 : 3대
- (2) 문화상품권 : 만원권 100매
- (3) 학교 홍보시계 : 10개

다. 경품 당첨자 선발 방법 및 시상내역

- (1) 으뜸상 - 경 품 : MP3 3대
 - 선발방법 및 인원 : 설문 5개영역에 모두 응답한 재학생 중 추첨을 통해 3명 선발
 - (2) 버금상 - 경 품 : 문화상품권 만원권 2매
 - 선발방법 및 인원 : 설문 5개영역에 모두 응답한 재학생 중 추첨을 통해 2명 선발
 - (3) 참가상 - 경 품 : 문화상품권 만원권 1매
 - 선발방법 및 인원 : 설문 2개영역 이상에 응답한 재학생 중 추첨을 통해 50명 선발
 - (4) 행운상 - 경 품 : 학교 홍보시계
 - 선발방법 및 인원 : 설문조사 기간중 아래의 순서로 설문에 응답한 재학생 10명 선발
- (1번제, 100번제, 500번제, 1,000번제, 1,500번제, 2,000번제, 2002번제, 3,000번제, 4,000번제, 5,000번제)

라. 당첨자 추첨 및 발표

- (1) 당첨자 추첨
 - 추첨일 : 2002. 9. 25(수) 예정
 - 추첨위원 : 교무처장, 학사지원실장, 교육여건조사위원회 위원, 관련 직원 및 신문사 기자
- (2) 당첨자 발표
 - 발표일 : 2002. 10. 2(수) 이전 예정
 - 발표장소 : 학교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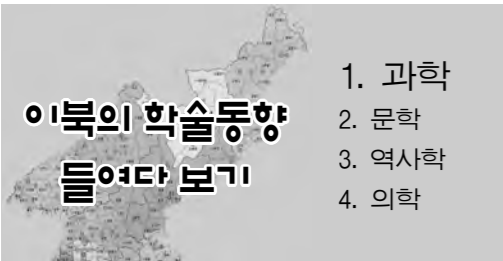
서울캠 교무처

전국대학생 여성문제 논문 공모

차세대 주역인 전국의 남녀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여성문제에 관심을 확산시키고 미래지향적인 여성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제6회 전국대학생 여성문제 논문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응모자격** : 전국 대학(전문대 포함)의 남녀대학생 및 석사과정 중인 학생
- 주제**
 - 기획주제 : 여성의 과학·기술 친화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
 - 자유주제 : 여성문제 해결과 관련한 주제 중 자유롭게 선정
 - * 기획주제와 자유주제 중 한가지 선택
- 접수기간** : 2002. 9. 23(월) ~ 2002. 9. 28(토)
- 분량** : A4용지 20매 내외(한글 96이상 W/P)로 작성
 - * 작성요령 : page당 28줄 정도, 글자크기 10.5point, 좌·우 여백 각 25, 꼬리말 15, 줄간격 200~220
-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1통, 논문원고 1부, 디스켓 1매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 우편접수시 응모마감일 소인분까지 접수
- 제출처** : 경기도청 여성정책과 대학생논문 공모전 담당자 양
 -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1 (우 441-701)
- 심사방향** : 주제의 시의 적절성과 참신성, 실현가능성 있는 구체적 정책제시, 경기도 여성문제와의 관련성
- 우수작 입상자 발표** : 2002. 10. 18(금) - 입상자에게 개별 통지
- 시상** : 2002. 11월 초순
 - 최우수(1편) : 시상금 200만원
 - 우수(1편) : 시상금 100만원
 - 장려(2편) : 시상금 각 50만원
- 유의사항** : 2인에 한하여 공동연구 논문원고 표지에 주민등록번호, 소속대학, 주소, 전화번호 명기
- 기타**
 - 문의 : 경기도청 여성정책과 ☎ 031-249-2522, 4386~4388
 - 자세한 사항 : 경기도 홈페이지 http://kg21.net(생활문화정보/여성정보)

경기도청 여성정책과



1. 과학
2. 문학
3. 역사학
4. 의학

‘과학 부흥기’ 기초과학에서 첨단기술까지

지문·문자인식 프로그램 수준급 ... 첨단과학 분야도 지속적 연구

‘정보기술(IT)로 이끌어 가는 21세기.’ 세계 어느 곳에 내걸어도 어색하지 않은 이 슬로건은 마찬가지로 이북에도 해당되는 문구다. 그만큼 정보기술(IT)은 현재 이북에서 주목받고 있는 핵심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평양정보센터, 조선컴퓨터센터, 국가과학원 산하의 자동화연구소 등 전문연구기관은 정보기술 개발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김일성종합대학의 컴퓨터과학대학과 정보센터, 김책공업종합대학(이하 김책공대)의 컴퓨터학과와 정보센터도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정보기술의 중심지이다.

이처럼 각 연구소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정보기술 연구와 개발에 몰두한 결과 현재 이북의 지문, 음성 및 문자 인식 시스템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고 평가된다. 대표적 문자인식 프로그램인 ‘신동2002’ ‘고려펜’은 지난 4월 중국에서 열린 ‘제1차 조선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시회’에 전시돼 세계 각지에서 모인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기도 했다.

북의 과학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전북대 과학

학과 김근배 교수는 “현재 북측은 소프트웨어 개발 ‘부흥기’이며 특히 인식 프로그램 분야는 남측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정도”라고 북의 IT 수준을 평가한다.

한편, 이북은 반도체재료를 비롯한 첨단재료 개발 등 첨단과학기술 연구에도 주력하고 있다. 과학원 전자재료연구소는 적외선투과도와 결정성장(結晶成長, 결정구조를 가진 물질의 결정입자가 커지는 현상)지표를 얻어내 결정성장장치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지니고 있고, 반도체 직 접회로에 이용되는 전자재료의 질을 선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생산 설비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김책공대 반도체 직접회로 연구팀은 반도체 소자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숫자식 측정장치’와 ‘반도체식 공진변환기’를 개발하기도 했다. 과학원 물리연구소도 의학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온 초전도소자’를 개발, 첨단과학 연구의 발전에 일조했다.

물리연구소는 이와 함께 몇 해 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강조돼 온 기초과학연구에도 역점을 뒀다. 플라즈마(plasma) 연구, 유체역학 연구, 탄성미론

연구 등에서 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 난제로 여겨지는 기초과학연구과제 ‘강한 비선형 미분방정식의 해석적 풀이법’을 밝혀내기도 했다. 또한 이북의 물리학 중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인 핵물리학 연구는 리슨기, 도원록 박사에 의해 이뤄져 핵 개발에 필수적인 이론적 기반이 구축돼 있다.

이외에도 우주과학과 로켓 기술 분야는 물리학, 수학, 천문학 등 기초과학의 바탕 위에 첨단과학기술이 더해져 발달하고 있다. 이북은 지난 98년에 이미 ‘광명성 1호’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인공위성 자체개발 기술 보유력을 지닌 나라 중 하나가 되었고, 최근에는 새로운 인공위성 개발도 추진 중이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영화사 연구는 늘 현재적인 것

영화와 역사가 만나는 영화사 연구는 언뜻 보면 과거에 갇힌 고리타분한 분위기를 풍긴다.

지금 잘 나가는 한국영화 -하긴 요즘 와서 기간 긴 거품이 빠져 위기론이 슬슬 일곤 하지만- 를 쫓고두고 신과 뱀새나는 과거 영화들을 찾아보고, 낡은 신문자료를 뒤지는 일 같은 먼지 쌓인 작업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늘 현재를 해명하고 미래를 가능하기 위한 작업이란 점을 상기한다면 영화사연구가말로 가장 도전해 볼만한 영화연구분야이다. 그런 점에서 ‘역사란 늘 현재적인 것이다’란 크로체의 지적은 옳다.

영화사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채 반세기도 못된다. 1910년대 미국의 영화기자가 영화인들을 취재해서 묶어 내놓은 자료들로부터 시작해서 역사연구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은 대학이 영화학을 학문의 영역으로 받아들인 1950년대 이후이다.

한국에선 1962년 안중화의 ‘한국영화추천비서’가 제목에서 짐작되듯이 미거나 식의 현상 영화인의 경험담 모음집으로 시작되어 80년대 이후 대학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초기의 영화사연구는 위대한 영화인열전식의 개인전기담이나 중요한 영화들을 연대별로 소개하고 분석하는 미숙한 차원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역사학의 방법론과 대중문화론에 근거한 반엘리트주의적인 영화사화학적 시각이 도입되면서 풍요로워지게 된다.

나는 영화사 연구에서 통사적인 접근보다는 쟁점을 위주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흔히 한국영화사에서 통사가 없다는 지적을 하지만 실제로 통사적인 접근을 해 보인 불완전한 작업들이 존재하며, 실제로 통사는 각 이슈를 살린 미시적 접근적 역사적 연구를 토대로 구성되는 것이 순서이다.

특히 역사란 늘 현재에 재구성되는 것이며, 다시 쓰여져야 한다는 명제, 특히 과거 권력사와 정치사를 중심으로 하면서 잊혀지거나 지워진 거대한 빈틈으로서의 민중사나 일반인의 삶에 대한 역사같은 것들이 연구되어야 한다는 포스트모더니스트 역사방법론은 영화사에도 유효하다.

그런 점에서 영웅 찬양담과 정전의 정통성 지키기에 치우쳐 과거 영화사 연구가 간과한 관객론이나 영화사회학적인 연구는 우리세대가 해내야 할 중요한 연구거리들을 갖고 있다. 우선 한국영화사 연구는 과거 필름이 상당수 부재하다는 원천적인 막막함에 부딪힌다.

영화사연구의 1차 자료인 필름이 없다는 것은 분명 커다란 문제이지만 그것은 2차 자료인 신문과 잡지 등 기록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물론 연구자의 지적과 상상력도 필요하다.

역사란 분명 과거의 사실을 재구성하고 해석해내는 것이지만 그저 역시 어차피 연구자의 주관과 통찰력이 개입되는 내러티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작업은 가능하다.

21세기 지식인 사전

소설가 밀란 쿤데라(Milan Kundera)

시인이자 소설가, 시나리오 작가, 비교문학 교수 그리고 평론가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해 온 문학가 밀란 쿤데라(Milan Kundera · 74).

1929년 체코슬로바키아의 브르노에서 태어난 그는 17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시를 발표하고, 19살에는 당시 사회적 배경의 영향을 받아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에 입당했다.

하지만 50년대에 들어 스탈린주의 억압통치에 절정에 이르자 그는 비인간적으로 변모한 사회주의에 등을 돌리게 된다. 63년에 발표한 첫 장편소설 ‘농담’은 역사를 유린하고 인간의 자유로운 정신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사회에 대한 그의 특별한 비판이었다.

이후 밀란 쿤데라는 사회주의 개혁 운동인 ‘프라하의 봄’을 주도하지만 러시아의 침공으로 좌절되면서 모든 공직에서 해직당하고 창작과 출판의 자유를 잃는 시련을 겪게 된다.

하지만 75년 프랑스 렌느 대학의 초청으로 망명생활을 시작, 비교문학을 강의하고 활발한 창작활동을 벌이며 활약했다. 그는 소설 ‘이별의 왈츠’로 이탈리아의 최우수 외국소설상인 문테로 상을 수상했다. 또한 영화화되기도 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는 LA 타임스 상을 수상하기도 한다. 밀란 쿤데라는 이후에도 ‘불멸’ ‘느림’ ‘정체성’ 등의 문학작품을 꾸준히 발표했고, 현재까지 왕성한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

노벨상 100년 한국 상륙

영상과 함께 전시해 방문객 이해 도와

당뇨병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인슐린, 독일 동서 관계 변화의 상징 베를린 장벽 조각, 그리고 CD 플레이어. 이들은 모두 노벨상 100년을 장식한 주요 업적들이다.

1901년 폭약과 다이너마이트를 팔아 큰 부자가 된 과학자 알프레드 노벨이 찬양의 뜻을 대신해 만든 노벨상은 세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지난 2000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해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상이 됐다. 그리고 2002년, 노벨상 100년의 발자취가 정리된 ‘노벨상 100주년 기념전’이 노르웨이와 일본을 거쳐 한국에 상륙, 노벨 상의 모든 것이 일반인 앞에 그 모습을 나타냈다. 호암재단(이사장=이현재)과 스웨덴 노벨재단이 함께 마련한 노벨상 100주년 기념전은 ‘창조성의 문화’를 주제로 오는 11월 3일까지 서울 태평로 로망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노벨상 100년을 나타내는 시대별 주요 업적물 전시장과 노벨상 시스템을 설명해 주는 노벨상 수어기관, 창조성의 문화를 주제로 한 영상 다큐멘터리 등 노벨상과 관련된 다양한 기념물들이 나와 한 세기를 넘긴 노벨상의 100년 발자취를 한자리에서 살필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방문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부분의 전시물을 영상과 함께 준비했다. 주요 업적물을 설명하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영상을 통해 직접 이문을 설명해주며, 시상식 장면도 보여준다.

또한 이들의 발명과정을 영상 다큐멘터리로 준비해 물리, 화학, 의학 등 어려운 분야에 대한 방문객의 이해를 돕는다. 이 외에도 평화관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수상소감과 상장 그리고 육종에서 김 대통령이 입었던 수의와 관련된 책 등이 전시되어 있다.

문학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노벨 문학상 101년과 영화전’도 준비되어 있다. 이 전시는 헤르만 헤세 박물관 건립 위원회(위원장=김종인) 주최로 오는 11월 30일까지 경희궁 안 옛 서울 시립미술관 600년 기념관에서 진행된다.

노벨문학상 첫 회 수상자 윌리 프뤼퐁의 친필 편지부터 헤르만 헤세의 타이프 리타 등 역대 수상자 98인의 작품 및 유품 총 1천여 점을 한자리에 모았다. 또한 노벨상 수상과 관련된 ‘노인과 바다’ ‘열국’ 등을 상영하며, 우리나라 첫 노벨문학상을 기원하는 한국 문학 특별전 코너를 마련해 외국어로 번역된 한국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언어연구교육원 가을특강

	영어회화	영어회화 특강반	영어회화 특강반	Screen English	Writing & Speaking	Business English	CBT TOEFL	독해를 위한 대학영문법
강의 시간	8:00-9:00	17:00-18:30 (월,화,목)	17:00-18:30 (월,화,목)	17:00-18:00	8:00-9:00 17:00-18:00	8:00-9:00	18:00	8:00-9:00
정원	15인	15인	15인	30인	15인	15인	40인	40인
교수	초빙교수 (Native Speaker)	Ruth Liddle	David Green	James Crossman	Lezlie/Mary-Anne/Darcy	Tumacder/Curt	오금동	정효진
수강료	8만원	16만원 (10주과정)	8만15천원 (5주과정)	8만원	10만원	9만원	9만원	8만원
개설 1차	○	○	○	○	○	○	○	○
여부 2차	○		○		○	○		
강의 기간	1차 : 2002년 9월 9일 (월) - 2002년 10월 10일(목) (5주) 2차 : 2002년 10월 28일(월) - 2002년 11월 28일(목)(5주) 월 - 목 60분 강의							
접수	2002년 9월 부터							
문의 및 접수	언어연구교육원 사무실(해화관 1층) 전화:2260·3470/1 팩스:2260·3691 E-mail: today@dongguk.edu http://today.dongguk.ac.kr							

English Conversation/영어회화

- 상황별 영어회화를 통한 단계적 실력향상 프로그램.
- 레벨테스트를 통한 소규모 그룹구성.
- 강사진: Tammy, Kerry, Ivon, Roy, Paul

Special Conversation Class/고급 영어회화 특강과정

- Upper Intermediate수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좌로서 "Me and My Life"라는 주제로 심도있게 프로그래밍 된 고급 영어회화 과정.

Special Conversation Class/고급 영어회화 특강과정

- High Beginner 수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좌로서 "Me and My Life"를 주제로 심도있게 프로그래밍 된 고급영어회화 과정.

Screen English

- 시트콤 Friends를 통해 상황별 실용영어표현을 익힐 수 있는 강좌.

Writing & Speaking/작문수업

-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작문 훈련.
- 발표 및 토론을 통한 회화실력 향상.

Business English/비즈니스 영어

- 영어이력서 작성 및 자기소개서 꼼꼼 지도.
- 인터뷰에서부터 프리젠테이션까지 실전 완벽 대비.

CBT TOEFL/토플특강

- 실전문제풀이를 통해 토플의 최신 경향을 짚어내는 강의.
- 유학 및 고급영어항상을 위한 최적의 코스.

독해를 위한 대학영문법

- TOEIC 및 TOEFL, 영자매체 완벽 독해를 위한 특별강좌.
- 기초개념 확인 작업과 철저한 문제 분석, 심화 학습.

▶ 모의 토익 테스트 무료 응시 혜택

▶ 2과목 동시 수강 시 1만원 할인 혜택

▶ 전 수강생 웹 토익 무료 수강 혜택

멀티미디어 시청각 교육실 안내

언어연구교육원(해화관 1층)은 재학생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어학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멀티미디어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자료 제공**
Window Media Player를 통한 동영상으로 학습하는 개인용 PC (70석)시설과 Audio-Video 전용석 (35석)을 갖추고 있으며, 위성방송(CNN, NBC, AFKN, NHK, STAR TV등)을 이용한 어학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효과적인 시청각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① VOD Server에 구축된 자료들을 개인용 PC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Server 자료는 영어의 경우 항목별(어휘, 문법, 발음, 청취, 독해, 회화) 30편 이내이며, 기타 언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의 경우 언어별로 5편 이내로 제한됩니다.
② 시청각 실내에 비치된 자료들을 목록을 참고하여 개인대출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대출 방식 자료는 선호도가 다소 떨어지거나 학습효과가 덜한 것으로 CD로 변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용시간 안내**
▶ 학기 중: 09:00 - 21:00 (월-금), 10:00 - 16:00 (토)
▶ 방학 중: 10:00 - 17:00 (월-금)
※ 일요일과 국가 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이용방법**
본교에 재학중인 모든 학생들은 학생증 제시만으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개인대출 방식으로 제공되는 자료들은 반드시 학생증을 맡겨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시 주의사항**
① 멀티미디어 시청각 교육실의 고유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합니다.
② 각종 대출 자료는 시청각 실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각종 기제는 어학학습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0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자



류승주



최동순



김은경



강병수



장준석



백찬규



김규태



김정대



조성숙



오형섭



조의환



이종우



장석화



백형조



임창호



박성수



조영모



권기룡



이점영



박승호



임재현



오대호



고강석



박수정



김은희



박영기



박동권



이아리



한상훈



이승철



김병찬



박정웅



김태영



서인선



이두훈



이광석



김병극



손창수



한상훈



박종혁



전경택



김기열



김봉찬



채종구



윤상주



김주성



현동환



선재광



원철환



임봉수



권철현



이윤정



정창환



김수성



최유형



이준호

박사학위 (총56명)

철학 (2명)

▲류승주=원효의 유식사상 연구 -식식론과 번뇌론을 중심으로-
▲최동순=선관사상의 변천과정 연구 -천태지관과 관련하여-

문학 (4명)

▲김은경=전문대학 영어교육 연구 -특수목적 영어를 중심으로-
▲강병수=하빈(河濱) 신후담(愼後聃)의 학문과 사상 연구
▲장준석=이공린의 백묘화 연구
▲백찬규=조선시대 궁궐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경복궁을 중심으로-

교육학 (3명)

▲김규태=교육감의 책무성 제고에 관한 연구
▲김정대=청소년참여를 통한 리더십 생활 기술 프로그램 개발
▲조성숙=자폐성 장애아동의 의사소통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언어발달 초기단계의 화용론적 특성-

법학 (1명)

▲오형섭=환경영향평가법제에 관한 연구

정치학 (1명)

▲조의환=한국 정당의 파벌에 관한 연구 -역대 정권의 주요 정당을 중심으로-

행정학 (2명)

▲이종우=건강보험제정의 건전성에 관한 연구
▲장석화=일선 재난관리행정에 관한 연구 -재난대응 관리를 중심으로-

경찰학 (3명)

▲백형조=전자정부시대의 경찰조직 개혁에 관한 연구
▲임창호=자율방범활동의 주민참여 요인에 관한 연구
▲박성수=경찰공무원 스트레스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학 (3명)

▲조영모=환경경영제권의 발전과 역대 경제협력 모델에 관한 연구
▲권기룡=이연법인회계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연구
▲이점영=의사결정지원도구(Decision Aid)가 감사인의 표본감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학 (6명)

▲박승호=중성자 조사된 GaN 에피층의 특성연구
▲임재현=Liquid Phase Epitaxy로 성장한 GaMnAs 에피층의 물성 연구
▲오대호=네트워크 신뢰도의 근사 계산을 위한 알고리즘 연구
▲고강석=멸종위기식물인 돌매 하나무(Diapsis lapponica var. obovata Fr. Sc II M)의 유전자구조 분석과 보전방안에 관한 연구
▲박수정=NaCl-KCl 혼합식염 사용이 한국 젊은 여성의 나트륨 섭취 및 대사에 미치는 영향
▲김은희="아동의 사회 도덕성 판단과 정서반응 -도덕 규칙 위반, 인습 규칙 위반, 개인 취향 동등성 및 성 역할 동등성을 중심으로-

임학 (1명)

▲박영기=A Study on the Identification of Extractives and their Antimicrobial and Antioxidative effects of Sophora Japonica L.

공학 (11명)

▲박동권=Image Retrieval and Scene Change Detection Using Block-based Edge Extraction
▲이아리=자바 바이트코드를 위한 코드 최적화기의 자동적 구성
▲한상훈=연속 영상의 그림자와 컬러를 이용한 전방 차량 및 차선 검출
▲이승철=운명자료에 기초한 배수관망의 최적확장설계
▲김병찬=유역자료가 부족한 호소의 형상 변화에 관한 연구
▲박정웅=수평 배수재의 통수특성과 입밀 해석에 관한 연구
▲김태영=강구조 편심브레이스 골조의 탄성 및 비탄성 거동
▲서인선=수계 아크릴 접착제의 접착 물성과 수분산성에 관한 연구
▲이두훈=간세포 구상체 배양 기술을 이용한 생인공간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이광석=발효 식량의 디지털 영상분석 평가에 관한 연구

▲김병극=Zigzag 포켓가공에서 절삭시간 최소화 위한 가공방향 결정

한의학 (18명)

▲손창수=경락기화의 원리와 운용에 대한 연구
▲한상훈=천궁 약침액의 암예방 활성에 관한 연구
▲박종혁=난소 절제 후의 골대사에 미치는 별갑의 영향
▲전경택=실비음이 Zucker rat의 비만 및 항산화에 미치는 영향
▲김기열=화간전이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한 간독성에 미치는 영향
▲김봉찬=소청룡탕이 Zucker rat의 비만 및 항산화에 미치는 영향
▲윤상주=백사 간손상에 의한 구기자의 유리자유기 소거능에 관한 연구
▲김주성=삼삼백문탕이 위·십이지장 점막 손상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
▲현동환=CCl₄로 유발된 백서의 간손상에 대한 갈근의 간보호작용 연구
▲선재광=천인상에 따른 기혈·신의 운행체계와 침구학적인 운용에 관한 연구
▲원철환=배양 대뇌신경세포의 저당-저산소증 모델에서 우황청심원에 의한 세포사

방지 연구

▲임봉수=Effect of Salviae Radix extract on chemical hypoxia-induced cell death in human glioma cells
▲권철현=fMRI를 이용하여 수지골신운동과 조해(KI6) 자침에 의한 대뇌운동피질의 활성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이윤정=Growth inhibition and apoptosis of leiomyoma cells by Scutellaria barbata D. Don (Lamiaceae)
▲정창환=Inhibitory effect of Drynariae Rhizoma extract on cathepsin K activity in cultured mouse osteoclasts
▲김수성=Effects of Euonymus alatus extract on lipid peroxidation and antioxidative enzymes in cultured rat hepatocytes
▲최유형="Protective and Anti-arthritis Effects of Cervi Pantotrichum Cornu Herbal Acupuncture, Inhibiting Dihydroorotate Dehydrogenase, on Phosphate Ions-mediated Chondrocyte Apoptosis and Rat Collagen-induced Arthritis"

의학 (1명)

▲이준호=2001년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콜레라 유행에 관한 역학조사

석사학위 (총516명)

일반대학원 (156명)			
문학	김상건 이선이 글렌 최 김경숙 김유미 고석훈 광영희 김문정 김수진 김일환 백은시 복도훈 이미성 이현정 최섬미 손광수 이은경 이재리 김수민 임승웅 한성민 강삼해 강수연 고경아 김윤정 김은선 김혜경 신명희 윤미향 이은영 황명아 한성호 박용갑 윤유선 최연용 미술학	김성태 이경철 김용욱 김진수 김형준 최인석 김장신 이종대 이종원 김영호 안현진 변원준 박성철 조범석 김영호 신연순 서혜경 김인규 최재우 김현정 이소민 이현택	
법학	김정현 이상숙 조재수 이흥식 이종필 김수철 김민정 송민정 김한수 지성혁 정경미 박정환 이상숙 조재수 이흥식 이종필 김수철 김민정 송민정 김한수 지성혁 정경미	김성태 이경철 김용욱 김진수 김형준 최인석 김장신 이종대 이종원 김영호 안현진 변원준 박성철 조범석 김영호 신연순 서혜경 김인규 최재우 김현정 이소민 이현택	
정치학	박정환 이상숙 조재수 이흥식 이종필 김수철 김민정 송민정 김한수 지성혁 정경미	김성태 이경철 김용욱 김진수 김형준 최인석 김장신 이종대 이종원 김영호 안현진 변원준 박성철 조범석 김영호 신연순 서혜경 김인규 최재우 김현정 이소민 이현택	
행정학	이흥식 이종필 김수철 김민정 송민정 김한수 지성혁 정경미	김성태 이경철 김용욱 김진수 김형준 최인석 김장신 이종대 이종원 김영호 안현진 변원준 박성철 조범석 김영호 신연순 서혜경 김인규 최재우 김현정 이소민 이현택	
경찰학	김수철 김민정 송민정 김한수 지성혁 정경미	김성태 이경철 김용욱 김진수 김형준 최인석 김장신 이종대 이종원 김영호 안현진 변원준 박성철 조범석 김영호 신연순 서혜경 김인규 최재우 김현정 이소민 이현택	
경영학	송민정 김한수 지성혁 정경미	김성태 이경철 김용욱 김진수 김형준 최인석 김장신 이종대 이종원 김영호 안현진 변원준 박성철 조범석 김영호 신연순 서혜경 김인규 최재우 김현정 이소민 이현택	
주종성	김한수 지성혁 정경미	김성태 이경철 김용욱 김진수 김형준 최인석 김장신 이종대 이종원 김영호 안현진 변원준 박성철 조범석 김영호 신연순 서혜경 김인규 최재우 김현정 이소민 이현택	
상학	유승균 류상훈 김창준 정수영 박주완 장종원 홍순정 김방현 김상식 배재삼 구운모 공학 김대욱 김성환 류대욱 박노만 박세일 서동일 홍두근 강태기 김용대 신기호 조상현	김성태 이경철 김용욱 김진수 김형준 최인석 김장신 이종대 이종원 김영호 안현진 변원준 박성철 조범석 김영호 신연순 서혜경 김인규 최재우 김현정 이소민 이현택	
영상정보통신대학원 (1명)			
영화영상제작	정진섭		
불교대학원 (32명)			
문학	박세봉 송운주 이경원		

장성호 최지택 심재학 이덕진 조동섭 사회복지학 강 현 강병선 곽원호 김명규 김상애 김영대 김영수 김은주 김정숙 박관우 박소현 박인명 배석일 안경자 양지옥 여태동 오준순 이동은 이미경 이상욱 이세용 장원경 정재운 최동연
--

이화신 이회영 장상구 전원환 정운우 최광순 최우순 허성숙 홍우정 박상익 이정주 이흥만 정판석 최영진
--

경영대학원 (40명)

경영학	이인호 임동준 최승금 최현석 구남용 권중태 김광일 김대환 김시현 변승현 신중현 양용구 업재철 이광로 이태식 이호경 임정우 조연희 최혜권 김수현 김현식 신창규 유승주 장덕화 김도연 양경섭 이재철 고준석 김형길 성영선 신식원 이진수 임운승 최영근 최용래 최주현 김광우 김기평 김재득 류병호
------------	---

교육대학원 (87명)

교육학	고영희 권오희 김경희 김기순 김미혜 김수영 김윤희 김은희 서재립 오세운 이기운 이덕준 정현미 지경기 최선욱 양희 최진 강주연 계희자 곽시내 김나현 김연희 김윤진 김은아 김종한 김지은 김진상 김희원 김환대 도경숙 문미연 박선희 박수경 변계형 사석진 서금연 손정수 손정호 송순란 신현주 안명희 양숙희
------------	---

오승식 오정은 유준철 윤미숙 윤상진 이명란 이미정 이범기 이병원 이수림 이승호 이윤자 이은주 이진아 이해영 이형열 이화용 임봉화 임정빈 장병현 전은정 전호완 정봉순 정성열 정용석 정은영 정의규 정필운 조요민 조장은 지성근 지은정 최건환 최미자 최영달 최자현 최현주 최희숙 하귀녀 하창호 한재웅 허관무 홍성인 황금희

언론정보대학원 (19명)

경영학	김용문 박윤석 유미상
언론학	김동훈 김두식 김유준
문학	민병윤 박수자 방주현

산업기술환경대학원 (15명)

공학	구범석 김용식 김평집
이학	양재학

문화예술대학원 (20명)

문학	민병윤 박수자 방주현
-----------	-------------

학사학위 (총756명)

불교대학 (17명)			
강재은 구분희 박준명 서충현 정의영 정종문 정진용 주성하 김내현 민병수 박성환 박일용 김법관 김승식 박용환 이형수 최운정			
문과대학 (81명)			
김은미 김혜나 이남석 정은주 김창욱 김혜린 서인철 손동석 이승준 이주희 이진혜 김은미 이기원 한지숙 허도식 홍정현 신경아 김병희 김미숙 김소민 김승근 김용재 박정철 심상호 원효식 이애경 이종명 이종호 장재원 조진희 구현모 김보경 김서영 김은정 김 훈 나동원 노상희 류정주 박경아 박선영 박성호 박종근 박혜연 서정원 임승훈 양지훈 양진숙 엄성민 윤태경 이병희 이선주 이은미 이지혜 임경민 장소연 전랑선 정승길 차현지 최은진 김지운 김호산 박영훈 이란 이현영 이호광 전경진 차수정 김상민 김유리 방득기 왕선평 정진라 최현아 황대성 권형섭 박현래 배경혜 송지수 이현화 최세진 한인숙			
이과대학 (35명)			

문지영 박정연 서지현 유 현 한은수

경영대학 (101명)

곽동길 김건수 김경호 김대일 김세호 박경아 박수진 신우준 신유철 이동재 정은희 최승연 공태호 김남희 김민수 김병수 김선식 김성현 김영진 김정민 김정재 김영주 류대용 박근환 박종민 박종훈 박주현 박현미 박혜연 배준성 서영권 안지훈 오형철 유경욱 유한중 윤혜남 윤혜진 이관수 이동훈 이성주 이운선 이은석 이정무 이창원 이희분 임근철 정상훈 정의석 조성희 최미순 최병욱 최명욱 편강현 한지혜 한진규 한창선 허 욱 김유경 노명식 박혜진 이선희 이화진 장미옥 장환준 조희정 최완용 최정민 홍윤지 서민경 오성필 이연정 장미화 황미경 강명희 고상원 김교을 김라현 김세훈 김운수 류성훈 서영우 신성경 신혜영 안영숙 안현주 양영호 이상준 이석원 이은희 이재현 이희수 전경택 홍성혜 황윤성 박덕화 손문옥 신시영 이경민 이낙영 정유진 황정인
--

공과대학 (69명)

강연수 강준영 김시연 박성현 박영규 손인수 윤현택 이재우 정영철 조인호 김경립 김균환 김천용 박광수 심진섭 안정준 안준우 엄영수 이도현 이재형 이창배 정희중 최광천 함동호 공무성 김성현 김일환 김정수 남태식 박경화 박수현 신종호 정재운 조광철 한상희 한승훈 현근일 권오진 김남준 민상우 박유진 송병찬 이주열 이지운 최민기 최선민 최재훈 황재은 김영식 김진용 신원희 윤지운 이형춘 임은형 김희수 최영미 고득룡 국병석 김태우 남기욱 박정석 오영민 이정민 이한도 이형우 장우성 재현도 조남식 최익준
--

정보산업대학 (49명)

강상준 구충효 권미애 김의희 김현철 김형구 우동성 이재원 이재준 임경호 정희수 황규태 서광익 이원형 권순규 김길웅 박성환 박용희 박종광 송일운 안찬식 여상신 이한영 정석우 조일규 차현준 최유창 하진용 강민석 강병구 권수정 김영민 김윤태 김창규 김현경 문화선 박양석 박재희 석선미 신경미
--

양미선 이건영 이상혁 이성일 이은욱 이한용 최운화 노종찬 이임정

사범대학 (40명)

김지현 김진순 박항은 유상숙 장경수 정찬일 채현명 박현수 윤재욱 이윤기 황종모 박혜영 임준성 김민희 김용관 이나연 이리라 이승희 조영관 최혜 고재향 김윤민 김은미 나은실 이선진 이재현 임수경 주정용 최문정 박윤희 오유정 조천지 채민경 한애경 홍승연 김주영 김학표 이하영 임달국 임형철

예술대학 (19명)

양혜영 이미진 이지선 김은경 김현주 서예진 심연주 이일새 김오경 최광시 강경화 남현숙 박지은 최순철 최윤용 강현아 김영표 이현정 전원주

불교문화대학 (15명)

박준영 남동걸 박진우 김용백 박대규 김세봉 심희걸 권창모 주신희 박경수 최윤성 박수찬 조철호 오윤하 피교정
--

인문과학대학 (72명)

최영식 권오운 이 준 열준수 유승희 김상훈 박정복 조성진 유하엽 최지현 백해정 김수정 오세훈 조규섭 박호순 배기균
--

문학	김선욱 도명희 심은정 이양우 전영주 최준희 김정엽 류진아 오정민 육명순 장용휘 조미혜 황순영 노정용 조경래 음악학	김재수 오숙현 우현영 김석근 김예순
-----------	--	------------------------

국제정보대학원 (14명)

법학	남정연 안재현 김대희
공학	구영수 김규석 조기준
문학	이준복 최진순 홍기완 황병철

사회과학대학원 (39명)

정치학	김환생 이덕기 이상철
행정학	신희옥 박철웅 강재현
경제학	박인관 이원재 이상진
사회복지학	김준용 박정숙
스포츠학	박지은 박현우 최상희
경영학	차동길 박노재 김효우
사회복지학	김준용 박정숙
관광학	김준용 박정숙
사회복지학	김준용 박정숙

자연과학대학 (37명)

구상우 이정민 김세범 강보철 서수동 박관석 최준열 김승호 김문철 김대현 김흥연 김용규 최은아 엄문섭 류수희 정진락 박경란 서수연 김병렬 이승환 권지영 이진영 김관래 최영호 김동우 양대현 박창형 이상현 황명희 김미혜 박명광 이윤미 한기희 황지선 정 원 금혜진 김경태
--

법정대학 (22명)

김동영 김상현 조재욱 이대길 정세훈 김홍진 김재욱 노영선 박민경 유애리 황순기 황 희 이상범 박지훈 권태균 소환급 팽지원 안우민 이문형 송통재 김민재 이창현
--

상경대학 (54명)

유상훈 박민석 김명래 현기웅 권호중 안송이 조재익 허미정 김효진 이현애 신형섭 고승원 김용운 배종현 이갑용 노은숙 최미정 이인형 최원호 최기종 서정욱 장성준 김태성 김지은 이지혜 김대성 천희정 박상준 김창현 채명영 지성호 민재기 서혜진 김조영 진수현 김도훈 고경태 김호중 김정환 홍재만 김진래 임성식 전준희 신혜영 한창희 정태식 조승래 배수남 이경락 임진국 안홍용 최선희 정원철 정종혁
--

관광대학 (14명)

진정완 김성익 박상렬 주신영
김수형 김장수 제갈재성 송은숙
우윤정 이석걸 신미옥 김신희
이진균

동국대학교 의대·한의대 부속 불교종합병원 준공식·축하 공연

동국대학교 의대·한의대 부속 불교종합병원 이 마침내 준공되었습니다.
그동안 선원께 주신 여러분을 모시고 준공식을 거행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21세기 최첨단 양·한병행진 전문병원 ■

- ▶ 일 시 : 2002년 9월 27일(금)
- ▶ 장 소 :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병원 현장
- ▶ 프로그램 : - 식전행사 : 사물놀이 13:30
- 1부 : 준공식 14:00
- 2부 : 축하공연 15:30
- ▶ 공연출연진 : 김병조(사회), 김수희, 김흥국, 설문도, 송대관,
이은하, 장미화, 현철
- ▶ 교통편안내 : 158번 좌석·일반버스, 158-5번 일반버스,
567번 좌석버스, 33번 마을버스,
지하철 3호선 원당역(대중교통 환승)
- ▶ 문 의 :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 (☎ 2260-3300)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www.dongguk.edu

불교병원건립기금동참안내
(2260-3300 ARS 060-7000-119)

교수님께서 머물던 자리는 이제 비어있었지만 그 가르침만은 제자들 마음속에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날에 행운이 깃들시길 기원합니다. 편집자

망망대해같은 세상 속에서 당신의 타오르던 열정은 등대로 남았습니다

“지혜로운 눈으로 살아간다면 사회는 저절로 밝아지는게지”

일상적 진리에 안주하지 말고 세상을 창의적으로 바라보길

수업을 하던 한 교수가 갑자기 학생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강의를 들던 학생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한다. 하지만 강단을 유심히 살펴본 학생들은 얼마 후 강의의 탄성을 보낸다. 교수는 '목침'을 설명하기 위해 바닥에 누워버렸던 것이다.



목 정 배 교수
(불교대 불교학)

교수라는 직업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하는 것은 물론 신앙 활동까지 할 수 있게 해준 것에 감사 할 뿐이라는 목정배(불교학) 교수.

이렇듯 열성적인 모습으로 50여 년간 함께 해온 목 교수가 이제 교정을 떠나게 됐다. 하지만 그의 모습에서 섭섭하거나 아쉬운 표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온 세상이 내가 공부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곳이야. 섭섭할 이유가 없지.” 동국인으로서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목 교수의 열정은 처음과 다를 것이 없다.

이런 열정을 증명하듯 목 교수는 퇴임 후에도 신설되는 서울 불교대학원 대학교 총장으로서 학생들에게 또 한번의 강의를

하기로 돼 있어 그에게 '휴식'이라는 단어는 생소하게 여겨질 정도이다.

목정배 교수의 수업 역시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매번 강의한 내용을 녹음해 자신의 하루 강의 평가를 진행하기 때

문이다. 목 교수는 69년 강의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퇴임을 맞이하는 지금까지 이러한 끊임없는 자기관리로 강의의 질을 높이는 데 힘써왔다.

동학의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제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자는 있을 수 없다는 목 교수의 제자 사랑은 동학을 떠나려 하는 이 순간까지도 계속 되고 있다. “밝은 눈을 갖고 사물을 바로 만지는 사람이 되어야지”라며 당부하는 목 교수. 그는 학생들이 항상 지혜로운 눈으로 살아간다면 사회는 저절로 밝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일상생활이 곧 여행이야. 아침에 학교에 오는 것이 여행인 셈이지.” 목 교수는 지금껏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 항상 같은 시간 학교를 찾는 것이 그 애견 여행이기 때문이다. 이런 그의 모습을 동학에서 다시 보기는 힘들겠지만 목 교수 특유의 열정과 제자 사랑은 '휴식' 없이 계속될 것이다.

김진성 기자
yeam@dongguk.edu

“누가 내 이름 함부로 버리는 모습은 보지 못하겠네.”

순수 연구실 문패를 떼어 가져가겠다는 민태진(화학) 교수. 그에게는 30년을 함께 했던 연구실 문패까지 버릴 수 없는 보물이다.

“얼마 전부터 연구실 밖에서 생활하니 뭔가 허전하네. 30년을 이곳에서 보냈으니 오죽하겠나. 게다가 요즘 꿈에도 연구실이 나오니 난 이곳에서 벗어나 수 없는 운명 같네.” 비록 몸은 떠나지만 그의 마음만은 항상 연구실에 머물러 있다.

어린 시절부터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본교 화학과에 입학한 그는 72년부터 강단에 섰다.

교수생활 초 열악했던 연구환경 탓에 사재까지 털어 실험장비를 구입할 만큼 그의 열정은 남달랐다. “여기서 연구에 몰입할 때 가장 행복했지. 잠념 없이 나만의 연구세계로 빠져든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연구와 가르침에 모든 것을 바친 지 50



민 태 진 교수
(이과대 화학)

여 년. 그 긴 세월 동안 민 교수는 '진리에 대한 의문'을 품소 실천해왔다. 최초로 동물도 광합성 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해 세계의 이목을 끌 수 있었던 것 역시 진리에 안주하지 않는 노력의 결과였다.

“그래서 때로는 엉뚱한 사람으로 통하기도 했네. 하지만 그 엉뚱함이 창의적 사고를 만들지. 무엇이든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연구한다면 누구나 세상을 창의적으로 바라볼 수 있네.”

독창적인 학문을 추구하려는 그의 노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불교와 과학을 접목시키는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불교를 물질론적 관점으로 본다면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지.”

‘퇴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의욕으로 충만해 있는 민 교수는 오랜 세월동안 맺어온 학교와의 인연을 강의실에서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다. “비록 연구실은 떠나지만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계속 만나고 싶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공부거든.”

평생을 열정 하나로 살아온 민태진 교수. 그 열정의 불씨가 다시 한번 타오르기를 기대해본다.

(민)
qwertwq@dongguk.edu

퇴임교수 인터뷰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목표에 대한 확신 있어야

“학문하는 이유를 가르쳤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네”

도덕을 중시한 실천적 교육은 모든 학자의 임무



이 해 풍 교수
(이과대 생물학)

세상은 항상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다가올 새로운 뒤편에는 흘러간 옛 것이 있기에 변화는 아쉬움을 남기지 마련이다.

그러나 퇴임을 맞는 이해풍(생물학) 교수는 스스로의 '떠남' 앞에 당당하기만 하다. “내가 후배 교수들에게 자리를 넘겨 줌으로써 학교에 새로운 활력소를 준다고 생각하네.” 1956년 본교 생물학과 입학을 시작으로 47년을 한결같이 동국과 함께한 이 교수. 그 오랜 세월만큼 학교와의 정도 깊었지만 다가올 '신'을 위해 '구'가 되기를 자청한다. 이렇듯 변화를 받아들이는 이 교수의 겸손은 오히려 그의 자신감을 돋보이게 한다.

“학생들이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끝까지 노력했으면 좋겠어.” 대학시절, 형편이 어려워 유학을 망설이던 중 미국의 여러 대학에 편지를 보내는 등의 노력 끝에 메인 주립대학 장학생으로 입학한 그였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학창시절과는 달리 자신감과 적극성이 부족한 요즘 학생들에 대해 못내 아쉬운 기색이다.

“내가 입학할 당시 가건물이 대부분이 있지.” 넓어진 학교와 새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보며 학교의 변화를 가장 크게 느낀다는 이 교수. 반평생을 함께 하며 어느 누구보다 학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그는 “교수나 학생들이 학문적인 연구를 거리없이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며 학교 발전을 위한 조언도 잊지 않는다.

이 교수는 퇴임 후에도 일년 동안 학교에서 강의한 후, 남양주에서 자연과 더불어 지낼 계획이다.

“집 근처에 있는 예봉산과 운길산의 곤충표본을 만들어 학교 자연사 박물관에 기증할 생각인데. 마지막으로 내가 학교에 할 수 있는 일이지.”

앞으로 남은 여생을 학교와 사회를 위해 살고 싶다는 이해풍 교수. 스스로를 ‘옛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를 통해 옛 것을 연구해 새 것을 얻는다는 옹고지신의 미덕을 엿볼 수 있었다.

(석)
kauri21@dongguk.edu



김 필 수 교수
(인문대 철학)

황토 빛 바다와 조화를 이룬 붉은 토기. 고결한 자태를 뽐내는 난초와 책꽂이를 가득 메운 청대철학에 관한 수많은 서적들. 동양적인 매력이 물씬 풍기는 김필수(철학) 교수의 연구실이다. 그의 20년 교육 인생을 함께 해온 애장품 중 책상 한 편에 놓인 붉은 시절의 청춘을 간직한 액자가 눈에 들어온다. “58세가 넘으니 갑자기 나이가 드는 걸 실감하겠던군.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성숙해지듯 인문학 또한 연륜이 더할수록 깊이가 새로운 학문이지.”

대학 재학 시절, 중국철학 교수의 강의에 매력을 느껴 시작했다는 철학. 20년간 국제 유교철학 연합회 이사와 주역

학회장을 맡아 중국 철학의 간접적 경험을 생활화했고 25번이 넘게 중국을 드나들며 한중 철학회에 참가하는 열정을 가질 정도로 중국 철학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김 교수. 퇴임을 앞둔 며칠 전까지 중국 산둥성에서 열린 국제 학술회의에 다녀왔다는 그로부터 식지 않은 열정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중국 철학은 인문학의 보고야. 모든 학문의 시적인 인문학은 무너질 수도, 등한시할 수도 없지. 요즘 학생들은 취직에만 연연한 나머지 대학에서 진정한 학문을 하지 않아 걱정이야.”

김 교수는 대학시절에 꼭 해보고 싶은 학문을 연마하여 이를 인생의 알찬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한 밑거름이 완성되어야 비로소 직업교육을 통해 성숙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자로서 ‘지식’ 이전에 ‘인간의 도리’를 깨우치도록 제자들을 지도했다.

퇴임하는 노교수를 위한 제자들의 아쉬움 표출인가. 유난히 수북히 쌓여있는 교수님을 향한 편지들에서 제자들에 대한 김 교수의 열정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잠시 강단에 선 지난날의 추억에 잠긴 듯 웃음을 보이며 이제는 연구실을 비워야 한다는 아쉬움을 표하는 김 교수. 그가 보여준 오랜 철학의 향기는 학교를 떠난 뒤에도 영원히 강의실과 제자들의 가슴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김)
kgk@mail.dongguk.ac.kr



김 병 기 교수
(상경대 국제통상학)

“행복공식은 분수 꼴과 같아네. 분모는 자신의 욕망 강도이며 분자는 물질적 양을 뜻하네.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이 마르듯이 욕망은 충족하면 할수록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이지.”

퇴임 후 소(小)소유를 실천하고 유유자적하며 살고 싶다는 김병기(국제통상학) 교수의 말이다. 모든 일을 욕심과 사심없이 순리대로 진행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믿는 것이다.

“글로벌 시대인 요즘 세계경쟁력에 발맞추기 위해선 무역이 필수 불가결한 학문일세. ‘무역입국’이란 말과 같이 무역으로 나라를 세울 수 있네. 하지만 모든 학문은 도덕적 양심과 신윤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정신적이며 기초적인 인성교육의 바탕 위에 실질적 학문이 바로 선다는 가치관을 가진 김 교수.

김 교수의 교육 철학은 요즘 학생들이 옛 선인들의 교육 철학을 잊은 채 겉걸기식 공부만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자신을 포함한 학자들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더불어 개성만을 중요시하는 학생들에 대한 따끔한 사랑의 매이기도 하다.

1984년 본교와 첫 인연을 맺은 김 교수는 강단에 서기 전 무역 관련 공무원에 재직 경험은 바탕으로 원만한 인간 관계와 도덕에 위배되지 않는 학문 습득을 강조해 많은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김 교수의 이러한 기본을 중시한 실천적 태도는 학교에서 부총장, 교수 연합회장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기반이 됐다.

학내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서 학생들과 많은 생활을 나눠보지 못한 게 못내 아쉽다는 김 교수는 퇴임하는 순간까지 자신의 애장품 1천100권을 학교에 기증해 제자사랑을 몸소 보여 주고 있다.

이제는 인간을 가르치는 활동적인 학자의 역할을 후배 교수들에게 양보해야 하는 김 교수.

하지만 그가 가르친 실천, 도덕적 가치관은 후학들에게 큰 교훈으로 다가올 것이다.

(지)
jes@mail.dongguk.ac.kr

소나기

올 여름이 내게 남긴 것



△힘든 아르바이트끝에 얻은 장열. 그리고 까만 피부. △수해, 집 둘러보기! △300만원의 지출증. 부모님! 다음학기엔 반드시 수석장학을. △거리음원에서 얻은 영광의 화상(?) △카타르시스, 그 자체. 축구는 계속된다. △사범대 4학년들은 방학이 없었다. 여름도 없었고. △나어, 지나간 시간. △눈 밑의 주근깨. △수해... 졸업, 허무함, 도서 대출정지, 실업자, 잡기.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관용. △여정의 추억. △명품들만 남았다. 내가 동국대학생이라는 것. △게임하느라 나빠진 시력. △월드컵 4강의 꿈. △여자친구와의 짜릿한 추억. △냉방병. △마음의 여유. △올 여름이 내게 남긴 것? 수해로 인한 슬픔이 전부야. △이별 뒤에 오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내게는... △영양이에 남겨진 흔적들... 나 쪽 도서관에 있었거든. △허무, 그 자체. △여행, 이것만큼 좋은 건 없다(?) △괴로움이 전부야~ △바람이 내게 머물렀다 지나쳐듯,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 △수에 뛰어 진 돈, 그리고 눈물, 힘든 기억들뿐이다. △여름,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거 없잖아. 가족애. △남들 안 보는 틈을 타 변신했다. △타자가 무지 빨라졌다. △잠... 어쩔 수 없다.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아들 병역 문제가 5년 만에 또 대중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런데 문제의 내용은 약간(?) 달라졌다. 5년 전에는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 사람의 아들이 군대 안 간 것, 즉 병역에 대한 특권적 '면제'가 문제였다. 지금은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 사람의 부인까지 나서서 아들이 군대 안 가게 만든 것 여부가 쟁점이다. 즉 병역의 '불법 기피' 여부에 시선이 쏠리면서 진상 규명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병역 문제만 나오면, 그 관련자가 유명인이나 특정 사회집단일수록 우리 사회의 집단적 혐오와 반감은 어김없이, 그리고 집요하게 표출되어 왔다. 군복무 가산점 폐지를 주장했던 여성 단체들은 인터넷을 통해 거의 언어강간에 가까운 때도를 당했다. '아름다운 청년'이라던 가수 유승준은 입대를 앞두고 알미올 정도의 잔머리 굴림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후 아예 입국조차 못했다. 이 후보 아들 문제는 이런 대중 심리의 연장선 위에서 봐야 한다. 왜 이렇게 병역 문제, 그것도 이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이 관련되면 다들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분노하는가? 군대는 다 가야한다. 그런데 군대는 누구도 가기 싫어한다. 하지만 너나 없이 누구나 다 갔다 왔다. 사정이 이렇던 누구는 뺄수록 돈 써서 군대 안 갔고, 그래서 지금 인생살이 특을 보고



논단

홍윤기 문과대 철학과 교수

병역비리와 병역거부

있다. 그 알토란같은 26개월을 온전히 나한테 썼더라면 지금쯤 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아니, 그 무엇이든 못되더라도 인격 물수당하고, 재수 나뉘었다면 송장 될 뻔했던 그 공포와 수모. 사정이 이쯤 되면 군대 가지 않은 사람이 미운 정도가 아니라 얼굴 마주할 일만 없으면 과거의 억울함까지 실어 있는 대로 욕을 퍼부을 판이다. 이 억울함과 피해의식, 그리고 많지는 않았지만 사람에게 따라서는 군대 갔다온 것에 대한 자긍심도 어느 정도 섞인 이런 분노의 밑바닥에는 삶은 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저 기어야 했던 인간적 모델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군대를 충

독도가 안겨주는 감흥

지리교육과에 들어가 4년째. 우리나라 땅을 많이 밟아본 것은 아니지만, 각 지역마다 독특한 분위기가 있고, 그 지역에 맞는 사람들의 삶이 살아 숨쉬고 있어 이것들을 만나는 것은 큰 즐거움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적어도 나에게 독도만큼 큰 감흥을 주는 곳은 없었다. 독도는 화산섬 가운데 가장 민형별이다. 파도에 무던히도 꺾여 동도와 서도로 나뉘, 바다 한가운데 솟아있는 이 산은 험하고 가파르다. 현재 독도수비대가 상주하고 있고, 선박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은 동도와 서도에는 태풍시의 어민대피 속소가 있다. 독도 수비대는 울릉도에 배속된 전경들로 두 달에 한번씩 교대되는데, 갯벌갈매기들과 이곳에서 기르는 삼삼개, 해와 달과 별밖에는 벗할 것이 없다고 한다. 여기 주민들은 '푸른 울릉도·독도 가꾸기회'라는 모임을 통해 독도에 나

무를 심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수, 식생이 있어야 하고, 인간이 거주해야 한다. 그 중 식수는 과거 서도의 물골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구했고, 동도에는 독도수비대가 상주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에는 나무가 없다. 그래서 이 모임에서는 독도에 소나무를 심고 가꾸고, 쓰레기를 청소한다고 한다. 하지만 소나무들은 거의 죽고 약 5그루 정도만이 남아있었다. 노력에 비한다면 아쉬운 일이지만, 나는 소나무 다섯 그루만 남은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독도를 사랑하고 독도를 아끼고 늘 독도를 가슴속에 품고 사는 많은 분들의 사랑,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독도가 주는 감흥이 큰 건, 이런 많은 사랑을 느끼기엔 우리의 마음이 아직 너무 좁아서인 것 같다. 김경환 (사범대 지교4)

걷고 싶은 동약 만들기

방학중에 한가로운 교정을 이리 저리 거닐겠다면 나의 꿈은 깨져 버렸다. 사람으로 북적거리던 동약은 이제 그 자리를 각종 공사차량과 자가용들에 내어 주었다. 안 그래도 좁은 길은 수많은 차들로 거의 점거 농성장이 되어 버렸다. '주차할 곳이 없는데 어찌란 말인가?'는 항변이 들리는 듯도 하다. 거기에 사람이 끼어들 여지는 적어 보인다. 머리 뒤에도 눈이 달린 듯한 동물적인 순발력만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지난해 주차되어 있던 차가 미끄러져 학생 한 명이 치어 죽은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다만 정문 옆, 인적이 드문 곳에 세워진 조그만 돌덩이 하나가 그 억울한 죽음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 아이없는 사고의 재발방지책은 주차요금폭 정도였다. 서구의 대도시들에서는 보행자 전용도로 확대 등 사람 중심의 도시계획을 적극 추진 중이며 늦은 감이 있지만 서울에서도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운동이 활발하

게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더 이상 공간부족 등을 핑계삼아 미루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틀을 깨는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할 때이다. '걷고 싶은 동약'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더욱 넉넉하고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는다. 아니 그건 오히려 상식의 범주에 속한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꿈은 이루어진다'. 정기훈 (경영대 정보관리4)

관을 가득 메우며 땀흘려 공부하는 학생들을 담고 있었다. 멀지만 알찬 미래를 위해 1학년 때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부터 각종 자격증 공부에, 취업 준비로 학업열기가 후끈하다는 이야기였다. 심지어는 운전면허 시험 준비까지. 그래서 스스로 학업의욕을 잃게우고자 오랜만에 학교를 찾았다. 나름대로 세운 방학 계획들이 조금씩 헤이헤져 갈 무렵 열심히 공부하는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기대감은 곧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대 인기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수도권 지역을 선호하는 이 시점에 말이다. 학교를 알리고 인식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은 그 누구도 아닌 재학생들의 몫이 아닌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여유롭게 산과 바다로 여행을 떠나는 것도 젊은 날의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진정한 투자는 어떤 것인지를 판단해 보는 시간을 한 번쯤 가져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현희 (관광대 관광경영2)

서울 ☎ : 2260-3491 · 2 FAX : 2279-1270 경주 ☎ : (054) 770-2058 FAX : (054) 770-2057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이번호부터 만평·만화 작가가 임희정(미술3)에서 성덕환(서양화4)으로 바뀔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격담 축하합니다 △순경사관후보생회 필기합격생들 축하합니다. -민성 △현정이형! 생일 축하해요! -민과 석 △천재 유상숙의 조기졸업을 축하합니다. △이쁜 하영이 98학번의 마지막 남은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해. △95경영학과 이운선 드디어 졸업이네. △산진아, 재육아! 졸업 축하한다. △정찬일 조기졸업 축하한다. -삼숙 △재완을 복학을 축하. -MT하숙생들 △용관형, 해란누나 결혼 축하합니다. -마리타짱 △진호, 규돈이의 복학을 축하합니다. -길 △교육학과 98학번 정민수의 복학을 축하합니다. -준성 △영문 은진아! 졸업 축하해! -샘, 원서 △신동훈 졸업 축하한다. -신남96동기들

열심히 하시다 △佛대 새학기 열심히 하시다. -맛 △축생축사, 헤스퍼러스 열심히 해서 2학기 모든 대회 우승합니다. -최 △역교과 여러분! 임용고시 100일 남았습니다. 힘내세요. -של링 △여유인 여러분 연주회 D-22일입니다. 그 날까지 파이팅! △맨 ~ 행정고시 꼭 합격해라. 성공하면 친하게 지내자! △국교과 무쇠팔(엄모양) 열심히 하세요. 임용고시 합격! -무쇠다리 △국교과 99년나를 파이팅! △건우야! 열심히 공부해라. 난 내려간다. △한국 상경학회 심포 잘 해봅시다. -경영계의 이단아 그리고... △'죽어도 좋아' 영화상영 매우 즐겁게 봤구요! 제발 이 영화가 제한상영 등급에서 18세 이상 관람가로 뛴으면 좋겠네요. 영화를 보여주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해연누나! 날 더 이상 잡초라 부르지 마세요. -sun

온방길 축하합니다 △지난 여름 방학동안 있었던 법정대 김동희, 이영미, 여수연, 김동현, 조현수, 박한우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법정대 K △력이 형! 28일 입대를 축하합니다. -아웃사이더 기들 △은숙아, 자취방 구한거 축하해. △동수 선배님, (ㄹ)복학 축하드립니다! △23일 조스의 남친 태훈오빠 생일을 축하합니다. △선 ~ 차랑 365일 다되어 가네. 언제나? 축하한다. △금을 탄 친구야 축하파티, 어때? 수고하셨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해 주신 우리의 부모님들 ~ 감사합니다. 새학기 새출발 열심히 하겠습니다. △퇴임하신 김필수(철학과)교수님, 김병기(국제통상학과)교수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직 기간 수고하셨습니다. △동대반점 아저씨 매일매일 배달해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밀대를 쥐어든 당신의 모습을 보았습니

다. 작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 내십시오. △형창이 오빠, 방중에 알바 하느라 수고했어요. △편입공부 하느라 방학 내내 고시원에서 뭉그러진 희은아, 수고했다! 열심히 하시다 △불취 여러분 ~ 방학동안 연습하느라 수고하셨어요. 9월에 있을 대회 꼭 우승하세요. △동국법학연구회 Kelsen, 세상의 중심, 고요한 태풍의 눈이 됩시다! 파이팅!!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이여, 네 꿈을 펼쳐라. △"It's now never" △학생회 여러분, 2학기 때는 분발합시다!! △개강, 다시 한번 출발선에 서 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 국경아, 네가 사랑하는 음악에 대해 그 열정을 가슴에 새겨두고 큰 꿈을 키워! 넌 해낼 수 있어! △그이를 너무도 사랑합니다. 영원하길 기도해 주세요. -h △내 마음을 알았는지 아무런 말없이 쉽게 돈을 건네 준 미라리언, 고마워 ~

Table with columns for location (서울캠,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경주캠), date (월/화/수/목/금), and menu items with prices.

우리가 문화계 피짜라구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인류가 함유하는 문화와 맞물리며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왔다. 그리고 이 변화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런 변화의 순환이 일궈낸 예술을 무엇이라고 부를까.

퍼포먼스(performance), 행위예술이나 실험예술, 해프닝, 이벤트라고 불리기도 하며 신체를 이용해 전통적인 장르개념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표현유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예술행위를 이르는 말이다. 1950년대 말, 해프닝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도되었으며 점차 장르의 경계를 뛰어넘는 행위예술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최초의 퍼포먼스로는 1967년 청년작가협회 회원들의 '비닐우산과 촛불이 있는 해프닝'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같은 해 봄 정감자 씨가 벌인 '부명종선과 누드'가 국내 퍼포먼스의 시작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 시기를 시작으로 국내의 퍼포먼스 작가들은 대략 4세대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퍼포먼스의 국내 30여 년 역사를 돌아보는 행사가 열렸다. '2002 한국실험예술제'가 이번 한 달 동안 홍익대학교 주변 곳곳에서 개최된 것이다. 국내 최초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실험작가 70여 명이 총동원된 이번 예술제는 사진·영상전과 극장공연, 클럽공연 등 각종 퍼포먼스로 이뤄져 있으며 이들은 각각 다른 세 가

지 키워드를 가진다.

먼저 썸지 스페이스에서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사진·영상전 '인물로 본 한국 퍼포먼스 30년의 투영'은 '영감(inspiration)'을 표방하며 국내 퍼포먼스의 역사를 조명하는 자리이다.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에 이르는 1세대 퍼포먼스 작가들이 사회 억압에 반기를 들며 실험정신의 초석을 마련했다면 2세대가 활동한 80년대는 형식 실험 모더니즘의 시대였다. 그리고 이는 다시 90년대 3세대의 해체, 통합, 탈장르의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어지며, 오늘날 한국실험예술정신(KoPAS)을 중심으로 하는 4세대의

국내 퍼포먼스 30여 년사 조명하는 '2002 한국실험예술제' 열려

퍼포먼스 네트워크에 이르렀다. 기존의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일탈과 도전정신으로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 온 것이다. 전시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작가들의 특성을 사진과 영상으로 한 눈에 보여준다.

그리고 '공감(symphony)'을 말하는 극장공연과 '교감(relation)'을 이야기하는 클럽공연은 어제(25일)까지 씨어터 제로와 흥대 앞 10개 클럽에서 펼쳐졌다. 이 두 공연에서는 참여 작가들의 작품이 작가와 관객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형식으로 공연되었다.

이에 김백기 한국실험예술제 운영위원장은 "퍼포먼스는 과장하고 난해한 것이 아니라 재미 있고 다양한 것"이라며 "대중에게 실험예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예술제를 마련했다"고 기획의도를 전했다.

문화와 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과감한 시도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유의 실험성과 즉흥성으로 무장한 퍼포먼스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선구자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그러나 그동안의 퍼포먼스는 독특하고 창의적이면서도 다소 개인적이고 과격한 측면이 있어 주변부 예술에 머무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퍼포먼스는 음악, 환경, 플러 브레이드, 미술 등 대중에게 친숙한 소재와 이번 예술제 같은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는 대중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다면 퍼포먼스는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눈앞의 관객에게 어떤 방법보다도 강렬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예술, 퍼포먼스. 문화와 예술의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는 퍼포먼스가 이제 대중 속으로 간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활력연구소, 무료한 일상의 오아시스

휴식공간 겸비한 복합 미디어센터 충무로 역에 개관 예정



이성희 기자

"행운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삼태기로 퍼~ 드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흘러간 옛 노래가 뜬금없이 떠오를 때가 있다. 비오는 날이나 기분이 울적할 때, 그리고 특별한 할 일이 없는 지하철 안에서. 하지만 이제 충무로 역에서는 괜히 옛 노래를 흥얼거리며 무료함을 달래지 않아도 된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행운 대신 활력을, 삼태기 대신 미디어로 잔뜩 퍼 줄 '활력연구소'가 생겼기 때문이다.

활력연구소, 그 이름만 들으면 건강센터나 점술집이 연상된다. 그러나 지난 16, 17일에 열렸던 '개관 전 맛보기

투어데이' 때 공개된 모습은 사람들의 예상을 보기 좋게 깬다.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이 설립하고 사단법인 한국 독립영화협회가 운영하는 활력연구소는 지하철을 오가는 누구나 영상, 음악 등 다양한 미디어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복합미디어 센터이다. 충무로 역 지하 1층이 다채로운 영상 작품을 통해 무미건조한 통로에서 미디어 체험의 장소로 탈바꿈한 것이다.

먼저 연구소 입구에 위치한 '활력오아시스'는 시민들을 편안하게 보이는 둥그런 의자로 유혹해 대형 PDP화면에서 나오는 뮤직비디오와 해외 CF, 비디오 아트 등에 관심을 기울이게 설계됐다. 그리고 사방이 거울로 둘러싸인 복도를 조금만 지나면 두 번째 공간 '활력극장'이 나오는데, TV나 일반극장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독립영화나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을 상

영하며 정기적인 세미나와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10여 석의 편집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는 '활력작업장'은 평소에 영상작업에 관심이 있었던 이들에게 좋은 실습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간의 대여료만 내면 개인적인 영상편집이 가능하며 일반시민들을 위한 영상미디어 교육도 계획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활력연구소는 단 돈 천 원이면 천여편의 각종 영상물을 볼 수 있는 '활력비디오방'과 지렁이 소파에 앉아 유크박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시각예술관련 잡지를 볼 수 있는 '클럽활력'이 있어 오가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홍보 담당 정소희 씨는 "축 처진 시민들에게 활력을, 단색의 지하철 공간에는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30일로 계획되었던 개관일은 운영비 문제로 다음달 말로 미뤄진 상태다. 하지만 시민을 위한 공간이 충무로 역 한 칸에 마련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어찌되는 다른 활력을 얻지 않을까.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클릭! - 남북통합문화관(www.mct.go.kr/arirang)

국사책의 문화재 분포도를 보면 고대 문화재들이 남북 전체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수확여행 등을 통해 접할 기회가 많은 남측의 문화재에 비해 북측의 것들을 보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온라인 상에 마련됐다. 바로 '남북통합문화관(www.mct.go.kr/arirang)'이다.

남북통합문화관은 △유물관 △유적관 △문화소식 △지도검색 △통합검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자료들이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다. 특히 북측의 유물을 시기·재료·용도·기법별로 분류해 전시한 '북한특별전 시판'은 간단한 설명과 사진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음성설명도 들을 수 있어 눈에 띈다.

그리고 검색기능을 갖춘 '지도검색'에서는 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남북 문화재 분포도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통합검색'은 북측의 문화재들만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남북의 대표적인 문화재를 시대·주제별로 비교할 수 있는 '비교탐방'과 남북 문화재에 대한 학술논문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연구포럼'은 문화재에 대해 공부하



는 학생들에게 추천할 만 하다.

그러나 정확한 문화재 이름을 입력한 후에만 검색할 수 있는 검색 항목들은 문화재 이름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의 이용을 어렵게 한다.

또한 이용자들의 참여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연구포럼'과 회원게시판 등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통합문화관은 민족 동질성 회복의 밑거름인 문화유산 한 자리에서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몇 가지 문제점들만 보완한다면 대중들과 호흡하는 사이버 박물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김하나 기자 sellone@dongguk.edu

문화단신

20세기 세계의 포스터 100년전

동아일보사 주최로 '20세기 세계의 포스터 100년전'이 다음달 16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열린다.

'예술과 사회의 대화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포스터 100년의 역사를 말해주는 걸작 120여 점을 한 자리에 모아 보여준다.

이 작품들은 일본 '다케오 포스터 컬렉션'에서 뽑힌 것들로 호소·유행·상업 등 총 7개 부문으로 나뉘어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는 정보전달의 매체로만 인식됐던 포스터의 예술·역사적인 면을 되짚어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문의 399-1772

가리 지역감정, 오리 동서화합

지역감정을 걷어내기 위해 40여명의 가수들과 100여명의 문인들이 나섰다.

오늘(26일)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50여일 간 제주도에서 출발해 화개장터까지 순회공연을 하는 '갈가리, 지역감정'이 바로 그것이다.

지역 간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이번 공연은 노래, 시 낭독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거리 공연장에서 지역감정 영구추방을 기원하는 10만 국민서명운동을 하며, 12월 대선에서 지역감정을 의식하지 않겠다는 국민서약도 받는다.

특히 도착지인 화개장터에서는 국민통합을 기원하는 식수와 남한 8도의 흙을 모아 향토식을 가질 계획이라 기대한다.

전통사찰음식 조리강좌 수강생 모집

전통사찰음식을 통하여 불교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제5기 전통사찰음식 조리강좌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강사 : 선재스님 (본교 가정교육과 겸임교수)
- ▶ 교육일시 : 9월 11일 ~ 11월 20일(10회) 매주 수요일 10시 ~ 12시 30분
- ▶ 수강료 : 70,000원(재료비 포함)
- ▶ 접수 : 9월 2일(월) ~ 5일(목)
- ▶ 대상 : 동국인 남·녀 누구나 선착순 30명
- ▶ 문의 : 여학생실(2260-3056)



예전부터 동국대에 입학했으니 전통사찰음식강좌를 꼭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강좌더군요. 불교의 가르침이 그대로 녹아 있어서 음식을 하나하나 만들며 그때마다 교훈받음도 듣고 생활의 지혜를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4기 수강생 소감 -

생협 출자금 지급 안내

조합원들의 졸업을 축하드리며 출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 합니다.

1. 장 소 : 생활협동조합 사무국 (혜화관 1층)
2. 기 간 : 2002. 8. 22(목) ~ 5년 이내
3. 대 상 : 졸업생 중 조합원
 - * 제외대상 : 96학번을 포함한 그 이전 학번 중에 1996년 2학기에 등록하지 않은 졸업생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대리수령 불가)

* 가능한 기간 이내에 출자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체비평

도서 편

노무현을 부탁해

“영화와 현실정치의 오버랩으로 젊은이들에게 호소하다”



문화현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짚어 내는 공희준의 '노무현을 부탁해'.

이 책을 접하면서 제일 처음 든 느낌은

‘또 노무현인가’였다. 선거 때만 되면 난데 없이 대중정치인이 되고, ‘국민의 여망을 업고’라는 그 흔한 수식어가 달린 책들이 얼마나 난무하였는가.

그러나 이 책은 선거철 특수(?)를 노린 그런 책이 아니라 생각이 든다. 그런 책이라면 구태여 ‘~부탁해’라는 사정조의 제목은 달지도 않았을테니까.

먼저 이 책을 읽기 전 우리는 인터넷 안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대중적 대리인, 예를 들어 정치인이나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을 바라보는 불특정 네티즌의 감성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작가는 자신이 바라본 영화의 한 장면을 자연스럽게 현실 정치의 단면과 오버랩시킨다. 보통의 경우 우리는 모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수구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

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그의 과거행적이나 정책 등 가능한 많은 정보를 끌어다 붙이고 인과관계를 맺으려 노력한다. 그러나 작가는 영화를 보여 느낀 이질감, 분노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독자의 공감대를 이끌어 낸 뒤, 자연스럽게 현실 정치인의 행보와 결부시켜 그를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다.

한 예로 본서의 오마주이기도 한 ‘고양이를 부탁해’는 광범한, 우리 이웃의 누이 할 상고졸업생들의 일상의 삶을 스케치한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이 영화의 마지막 시퀀스인 태화와 지영이 자유를 찾아 함께 손잡고 떠난 것처럼, 우리도 노무현과 굳게 손잡고 미래를 개척하는 일에 나서자며 낮은 목소리로 전한다.

때문에 작가가 가진 파괴력은 ‘영화적

공감대’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도 영화를 바라보는 감성만 있다면 손쉽게 정치적 사안에 대한 감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짜여있다. 물론 이런 방식 자체가 본질을 꿰뚫는 방식으로는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에 동의한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정치적 지향을 직설화법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대중의 이해를 구하고 있지 않은가. 다만 2002년 대통령선거라는 시대적 화두에 주인공으로 나선 대중 정치인에 대해 영화적 감정이입만 거듭할 뿐이다.

결국 작가는 인터넷 공간에 상존하는 ‘의사소통의 코드’는 머리가 아닌 가슴에 있음을 웅변하고 있는 셈이다. 가슴에서 느껴지는 감성으로 바라보는 세상, 이것이 인터넷과 함께 성장해온 젊은 세대의 정치

적 동질성이다. 그렇기에 이 책을 쓴 비주류 문화평론가의 파괴력은 주류 정치평론가의 그것을 훨씬 앞지를 수 있다.

적어도 젊은이들이 겪어 본 민주당 국민경선과 월드컵에 대한 경험은 심정적으로 386세대가 광장에서 경험한 6월항쟁의 힘과 견줄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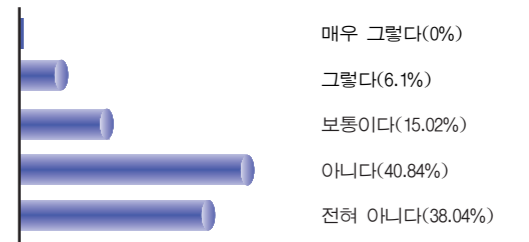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중의 공감대를 쫓아 그 힘을 다른 곳으로 전이시킬 수 있는 작가의 힘이 빛나는 것이다. 대중문화와 스포츠에 열광하는 젊은이들, 작가는 그들의 이런 열광이 자연스레 정치적 힘으로 전이되는 풍상을 할지 모른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다. “노무현을 부탁해.”

김재중
디지털 '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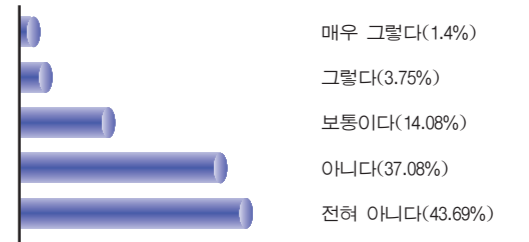
등급분류에 거는 발칙한 태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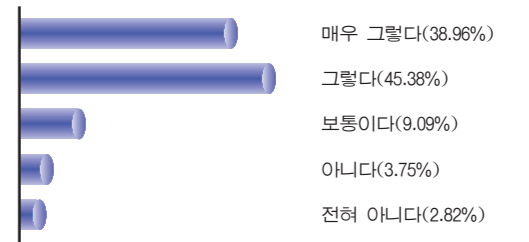
▶이 영화가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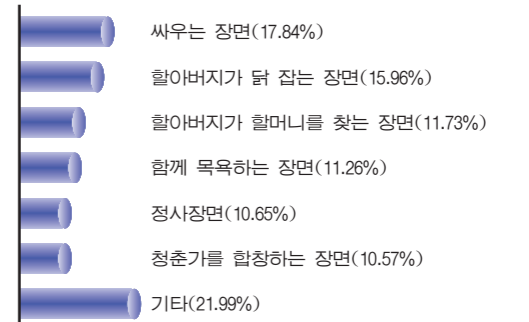
▶문제로 지적된 7분여간의 정사장면이 영화전체를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는가?



▶이 영화가 일반극장에서 '18세 이상' 상영가로 상영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 기타
- 계단에서 입맞추는 장면
 - 결혼사진 찍는 장면
 - 할아버지의 육상 체조장면
 - 병간호 장면
 - 행사장에서 노래하는 장면
 - 달력에 표시하는 장면

지난 21일, 본사와 학생복지위원회 주최로 영화 '죽어도 좋아' 상영회가 학림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죽어도 좋아'는 70대 노인의 성과 사랑을 다룬 영화로 구강성교와 성기노출이 문제가 돼 '국민정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영상물 등급위원회(위원장=김수용, 이하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판정을 받았다.

이에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영화와 공청회, 설문조사를 실시해 과연 이번 영등위의 판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등위의 구조적인 문제나 모순점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

영등위

등급판정

위험신호

체력장간 공 던지기, 100m 달리기, 멀리뛰기 등 여러 종목의 기록을 점수화해 1부터 5까지 등급을 매기는 중·고등학교 때 시험이다. 그런데 만약 100m를 11초에 뛰고 공을 60m나 던지는 학생이 5등급을 받았다면 어떨까. 그것도 단지 체육복을 짧게 입었다는 이유로. 영화 '죽어도 좋아'의 제한상영가 판정 이후 영화계 안팎에서 지적하는 영등위의 모순은 이와 같은 맥락이다.

영등위는 윤리성과 공공성에 의거해 영화를 비롯한 비디오, 게임, 음반에 등급을 부여하는 기구이다. 그런데 최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분류 기준의 모호함이다. 제한상영가는 음모나 성기가 노출되거나 과도하게 일반국민의 정서를 해치는 반사회적인 영화를 뜻한다. 하지만 영화의 메시지는 제쳐두고 음모나 성기노출로만 반사회적이라고 규정짓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각 시민단체에서도 이같이 뚜렷한 원칙이나 기준이 없는 등급분류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영화인회의 유창서 사무국

장은 지난해 크게 흥행한 영화 '조폭마누라'가 '15세 이상'을 받은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노출수위가 구체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성기노출보다 인간 존엄의 해악성과 성적수치심의 유발 유무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영등위가 언급했던 '국민정서를 해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우선 국민정서를 운운할 만한 근거자료가 무엇이나 하는 문제다. '죽어도 좋아'의 경우, 총 9명의 소위원회 위원 중 8명이 참석해 4:1로 팽팽한 찬반논쟁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보다 많은 이들에게 영화를 보여 주고 의견을 듣는 토론과 합의의 과정이 있었어야 한다. 하지만 영등위는 김수용 위원장의 단독결정에 따라 제한상영가를 확정지었고, 다분히 개인적인 생각이 '국민정서'로 둔갑해 언론에 발표된 것이다.

한편 제한상영가 '등급분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있다. 상영 이전에 내용을 심사해 허가받지 못한 영화는 발표를 금한다는 것은 엄연한 검열이라며

지난해 8월 위헌 판정을 받은 등급분류. 헌법재판소의 논리대로 따지자면 모든 영화는 어떤 식으로든 상영이 정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한상영관이 없는 현재 우리 현실에서 제한상영가 판정은 사실상 상영불가 판정인 셈이다.

어느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등급분류가 이처럼 '대단한' 법적 권한을 가질 수는 없다. 가령 미국은 등급 자체를 영화제작자들이 '권장사항'으로 제시하며,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프랑스의 등급기구도 포르노그래피를 X등급으로 분류시켜 성인전용관에서 상영하는 등 영화상영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다.

동물들의 성행위를 담은 북한영화 '동물들의 생활기', '죽어도 좋아' 심의 이전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유일한 영화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영화가 북한에서는 교육용으로 제작돼 TV에서 공개적으로 방영했다는 것.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이성희 기자

“‘죽어도 좋아’ 살리고 싶어요”

현재 제한상영가 등급 재심의 신청 ... 내일(27일) 결과 발표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아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킨 '죽어도 좋아' 홍보 담당의 아이엠 픽처스

마케팅 팀장 임상희 씨를 만나 기획의도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 70대 노인들의 사랑 이야기를 영화화 한 이유는.
= 박진표 감독이 '사랑'이라는 다큐멘터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박치규 할아버지와 이순애 할머니를 만났고 그 만남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다.

흔히 사랑을 젊은 남녀의 전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젊은 신혼부부와 다를 바 없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며, 사랑이라는 감정은 유체적으로 쇠한대해도 변치 않는 것임을 깨달았다. 또한 그러한 두 분의 모습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선입견을 깨뜨리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 필름에 담게 되었다.

-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예상했다.
= '18세 이상' 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어느 정도의 우려는 있었다. 문제가 된 7초 정도의 성기노출과 구강성교 장면이 영등위의 18세 이상 등급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화 전체를 봤을 때 장면이 그리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 영화가 포르노와 같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것이 아쉬울 수 밖에 없다. 또한 일부에서 불필요하게 길다고 지적한 7분여의 정사신은 두 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 감독의 의도적인 연출은 아니었다. 정사신을 통해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는 두 분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려 했을 뿐이다.

- 본교 상영회에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았는가.
= 영등위로부터 18세 이상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것은 우리 영화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이유였다.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고 특히 18세와 성인의 중간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필름을 제공하게 됐다. 상영 후 공청회에서 나온 학생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이 부당하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었는데 분위기가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

- 만약 재심에서도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는다면.
= 현재는 영화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생각이 없으며 감독 역시 제한상영가 전용관이 있었다면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봉일이 계속 미뤄질 경우 영화의 가치와 관객들의 관심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영화사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여러 시민단체들과 목소리를 모아 향후 거취를 정할 계획이다.

김하나 기자
sellone@dongguk.edu

우리생각, 이러쿵 저러쿵

ΔX양 비디오로 단련된 젊은이들, 이 정도는 끄떡없다.
Δ충격적이라기보다는 매우 사실적이다.
Δ실은 우리 모두 이틀처럼 살고 싶다. 다만 아직도 누군가 말하는 성규범의 눈치를 보며

두려워하고 있을 뿐.
Δ70대의 사랑과 삶을 두루 표현해 냈다고 하기에 너무 잦은 성교 장면이 연출된 것이 아닌가 한다.
Δ노인들도 에너지가 있다는 것에 놀랐다.
Δ재미있는 로맨틱 코미디다.
Δ사랑이라는 것이 젊은이의 특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Δ어떤 주제로 영화를 만들 건 그것을 제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Δ노인들 소년 소녀가 되다.
Δ다큐멘터리 한편 본 느낌.
Δ청춘은 70부터! 인생도 70부터!
Δ70대 노인들의 성을 보여주려 했었지만 부부생활 중 너무 성부반만을 표현해서 좀 그렇다.
Δ영화를 보는 도중 계속 웃었는데 이거 정말 웃어도 되는 것인가 말스러웠다.

Δ70대는 아직 젊다가 아니라 여전히 인간이다.
Δ부모님과 같이 보고 싶다.
Δ영화관람 내내 저 할아버지와 내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Δ젊은 배우들이 연기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 시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Δ나랑 남자친구랑 사귀는 것과 똑같다.
Δ포르노라고 하던데 나는 흥분이 안되더라.
Δ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메아리

자아도취

▲지난 6월 아시아의 축구 변방 '한국'을 4강에 올려놓은 채 막을 내린 '2002 한·일 월드컵'은 프랑스,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등 전통의 축구 강호 국가 국민에게 슬픔만을 안겨 주었다. 당시 이들의 실패를 놓고 전문가들은 세계 정상이라는 자아도취에 빠져 축구 약체 국가의 발전된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1970년 이후 국내 최고 관광지로 각

광을 받아 오던 경주가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 경주의 관광업은 지역 경제권을 구성하는 요소 중 제조업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대규모 소모 자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최대 관심 산업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주 관광객의 큰 비율을 차지한 수학여행단조차 최근 경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 하니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다수의 국내 여행자가 특성과 테마화를 시도하고

있고, 이러한 점이 관광객의 입맛에 들어맞아 굳이 유명 관광지인 경주를 선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경주 관광의 위기는 그 동안 시 당국과 수많은 관광관련 업계가 급변하는 국내 관광 흐름에 원활히 대처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경주는 선진 관광국의 정책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이를 한국 화시켜 발전해 나가는 타지역의 본보기를 배제한 '격리 관광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체험 문화를 원하는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아이템의 충분한 저변 확대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병합없는 문화유적, 즉 단순한 볼거리로 승부하겠다는 경주시의 현 전략은 경주 관광 낙후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의 축구 강국 대표팀들은 월드컵이 끝난 후 감독 교체의 급물살을 타며 다음 월드컵을 기약하고 있다. 이들에게 한·일 월드컵은 2002년 6월의 악몽이

자 축구 경기에서 영원한 강자는 없다는 교훈을 일깨워준 대회로 기억될 것이다.
경주 관광 관련업자들은 지금부터라도 현 흐름에 부합한 새로운 정책으로 관광 산업 재건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관광객들의 의뢰가 늘어날 때마다 경주는 기간 산업이 무너지는 지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형진우 편집부장
premier@mail.dongguk.ac.kr